

2013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개발하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일시 2013. 10. 2 (수)
10:00 ~ 15:00

장소 서천군 봄의마을 내
청소년문화센터 (3층), 종합학술센터 (4층)

주최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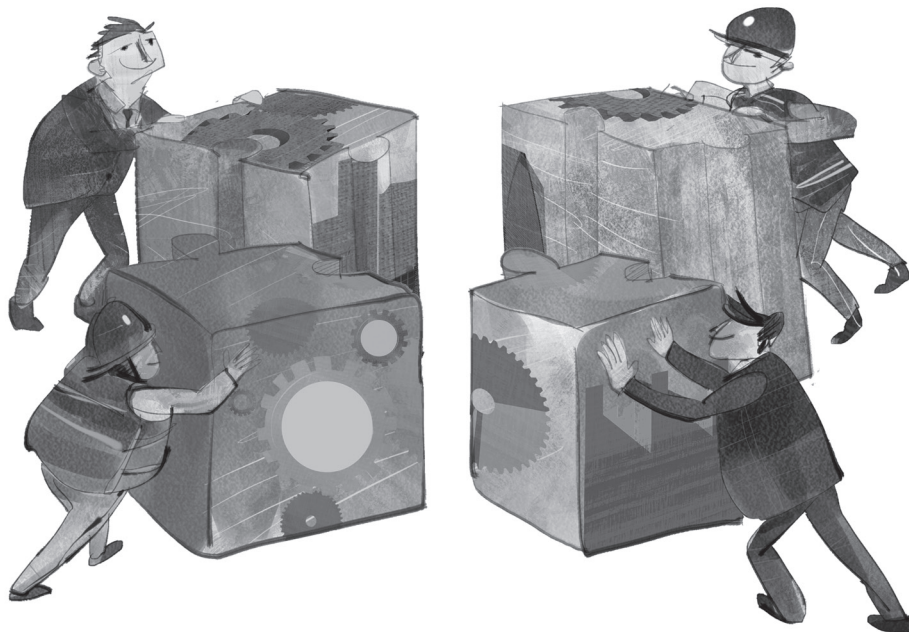


충남마을기업협의회

2013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

협동조합으로 지역을 개발하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일시 2013. 10. 2 (수)
10:00 ~ 15:00

장소 서천군 봄의마을 내
청소년문화센터 (3층), 종합학술센터 (4층)

주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서천군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협의회

프 로 그 램

9:30-9:50		등 록
9:50-10:00		<p>개 회 식</p> <p>■ 사회 :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p> <p>□ 축 사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p>
10:00-12:00	기 조 발 제	<p>주 제 발 표</p> <p>□ “충남 협동조합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p>□ “지역사회와 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p>토 론</p> <p>□ “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의 관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p>□ “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대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p>□ “ 협동조합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소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12:00-13:00		점 심 식 사
13:00~15:00	제 1 분 과	<p>주 제 발 표</p> <p>□ “협동조합과 지역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p>토 론</p> <p>□ “ 충남 지역개발협동조합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p>□ “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꿈과 도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현민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p>제 2 분 과</p>	<p>주 제 발 표</p> <p><input type="checkbox"/> “ 협동조합은 사업과 결사의 조합이 없으면 망한다.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사례 ”</p> <p>• 박승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대표</p> <p><input type="checkbox"/>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p> <p>•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이사</p> <p><input type="checkbox"/> “ 우리놀이협동조합 - 준비에서 시작...그리고 미래 - ”</p> <p>• 이원하 공주 우리놀이협동조합 상무</p>
<p>제 3 분 과</p>	<p>주 제 발 표</p> <p><input type="checkbox"/>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p> <p>• 정상진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p> <p><input type="checkbox"/>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방안”</p> <p>• 최재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p> <p><input type="checkbox"/>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p> <p>• 백세기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장</p>

목 차

1	기 조 발 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	5
2	제 1 분 과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	63
3	제 2 분 과 “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 운영방안 ”	109
4	제 3 분 과 “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65

01

기 조 발 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제1발제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제2발제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제1토론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제2토론 박대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제3토론 남원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기 조 발 제

1

충남 협동조합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송 두 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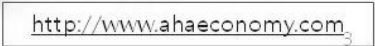
충남 협동조합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송 두 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CDI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왜 협동조합인가?
2. 충남 협동조합 현황
3. 충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4. 분석의 종합
5. 충남 협동조합의 발전방안



CRI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1 왜 협동조합인가?

●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도입

-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정의 핵심의제로 설정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경제의 정책 지향

●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지향

- 충남 도민의 60% 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

- 개인의 경제적 이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활용

- 협동조합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까지 활용은 미흡

-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준수한 경영에 대한 고민 부족

- 협동조합 정체성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사회발전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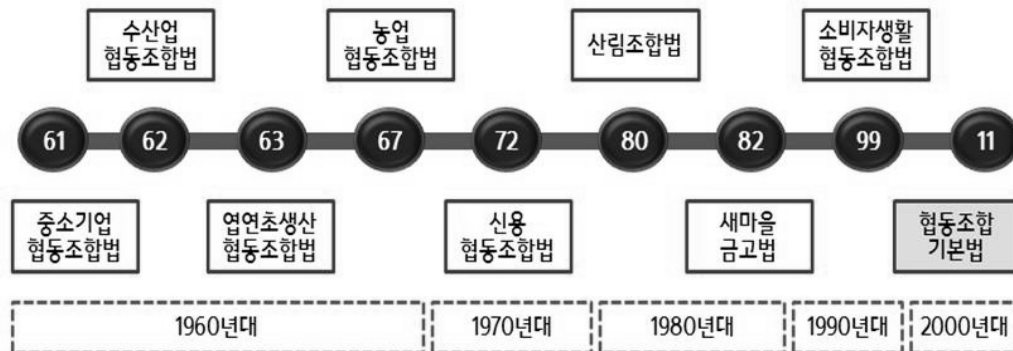
5

충남 협동조합 현황

<http://blog.posco.com/280>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 법률과 협동조합 유형



7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충남도 협동조합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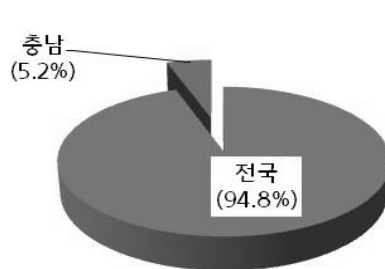
협동조합명	전 국		충 남	
	조합수(개)	조합원수(천명)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농업협동조합	1,166	2,453	142	294,733
수산업협동조합	92	159	8	13,505
중소기업협동조합	952	643	46	2,693
업연초생산협동조합	15	-	1	860
신용협동조합	955	5,860	54	300,892
산림조합	142	491	14	54,843
새마을금고	1,448	15,989	58	543,90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91	630	21	20,353
새로운협동조합 (2013.8.31)	일반협동조합	2,314	68	777
	사회적협동조합	66	3	223
합 계	7,541	26,285	415	1,232,78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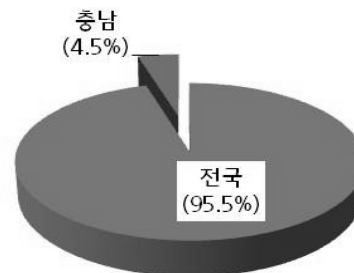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전국과 충남도의 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수 비교(전국 VS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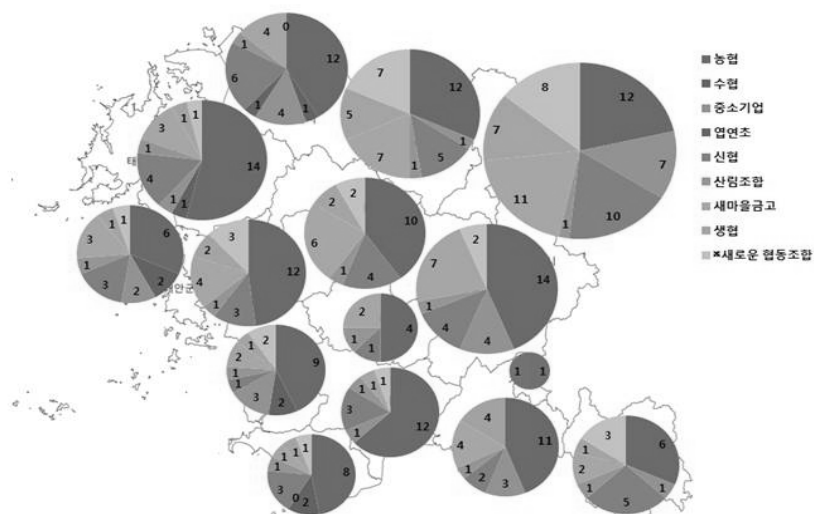
협동조합원수 비교(전국 VS 충남)



9

2) 충남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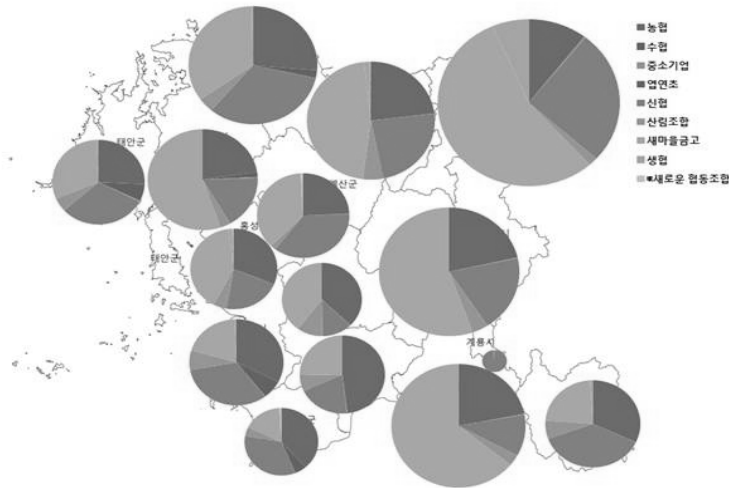
● **충남도 시군별 협동조합비교(조합수)**



10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충남도 시군별 협동조합비교(조합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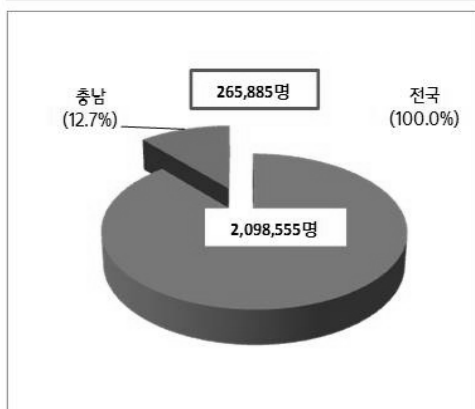
11

2 충남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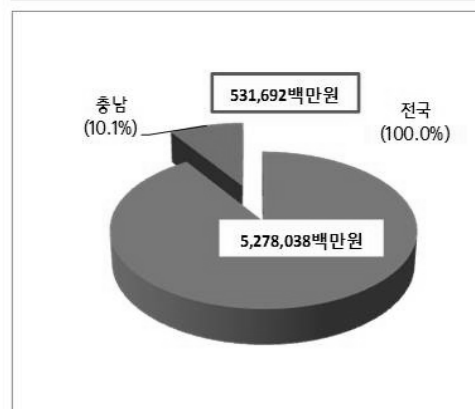
● 농업협동조합

- 조합원수 : 전국의 12.7%, 총출자금 : 전국의 10.1%
- 조합당 평균출자금 : 44억원(전국 55억)
- 조합원당 평균출자금 : 2백만원(전국 220만원)

농협 조합원수 비교(전국 VS 충남)



지역농협 출자금 비교(전국 VS 충남)



12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ICOOP, 한살림, 대학생협, 품앗이소비자생활협 등

조합명칭	회원조합	회원/조합원	비고
icoop생활협동 조합연합회	아산YMCA생활협	827	용화점, 배방점
	천안생활협	1,529	불당동
	공주생활협(준)	175	-
	충남내포생활협	300	2개소
한살림		13,699	아산, 두정, 쌍용매장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협동조합)		839	홍성
한국기술교육대학생활협동조합		350	학생식당, 교원식당, 커피전문점, 복지판매장 등
두레생활연합			एको생협당진점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4	대전, 세종, 공주, 계룡, 논산, 금산, 옥천 일원대상
합계		17,719	

13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수 : 58개(지역신협 53개, 직장신협 5개소)
- 협동조합원수 : 353,000명
- 조합당 평균조합원 수 : 6,086명
- 조합당 평균자산규모 : 431억원(2010년)

구분	수 (단위: 개)				조합원수	
	지역신협	직장신협	단체신협	계	조합원수 (단위: 천명)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 (단위: 명)
충남	53	5	0	58	353	6,086
전국	669	160	126	955	5,863	6,139

주: 연기관 포함

14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수 : 61개(도시 18, 농어촌 43개소)
- 거래회원수 : 564,000명
- 금고당 평균거래회원 수 : 9,246명

구 분	수 (단위: 개)			거래회원수	
	도시	농어촌	계	거래회원수 (단위: 천명)	금고당 평균 거래회원수 (단위: 명)
충 남	18	43	61	564	9,246
전 국	1,130	318	1,448	15,989	11,042

주: 연기군 포함

15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 68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 일반협동조합 설립동의자수/출자금 : 전국평균에 약간 못미침

구 분	전 국	충 남
일반협동조합	2,314	68
사회적협동조합	66	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8	0
계	2,388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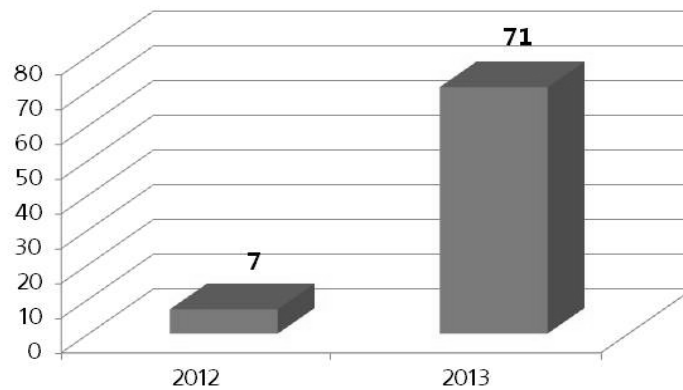
구 분	설립동의자수(평균)		출자금(천원)	
	충 남	전 국	충 남	전 국
일반협동조합	11.4	12.1	16,354	19,380
사회적협동조합	74.3	101.6	69,167	43,238

16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연도별 설립개수 : 2012년 7개, 2013년 7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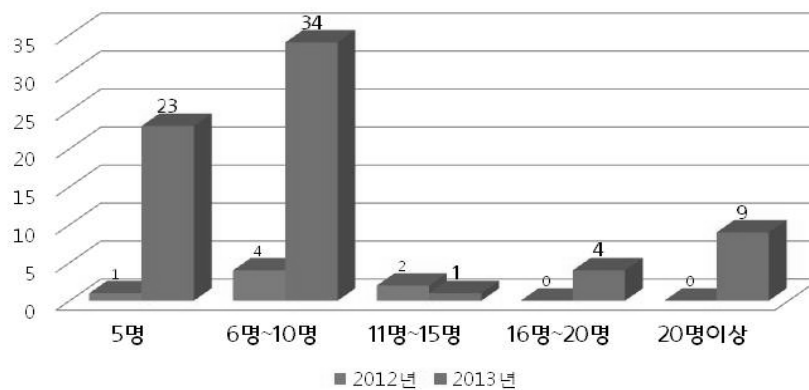


17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설립동의자 수 : 10명 이하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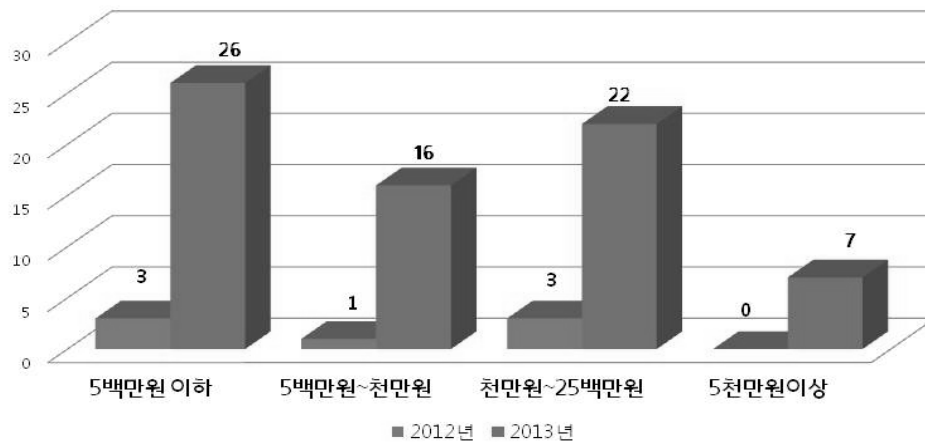


18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출자금액 : 5백만원이하>천만원~25백만원>5백~천만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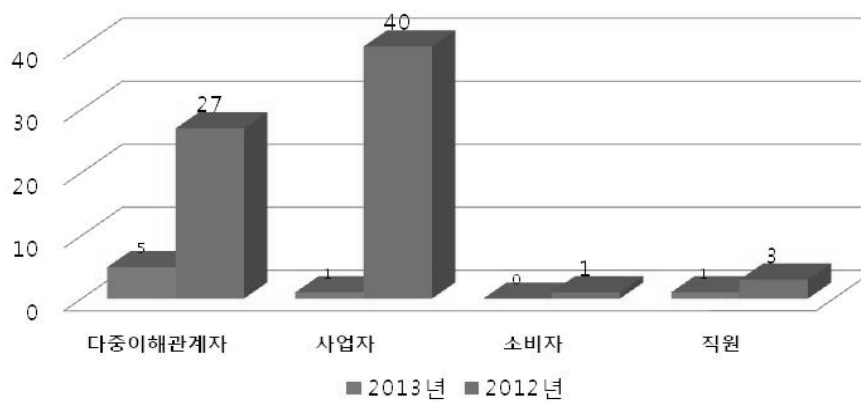


19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설립유형 : 사업자 및 다중이해관계자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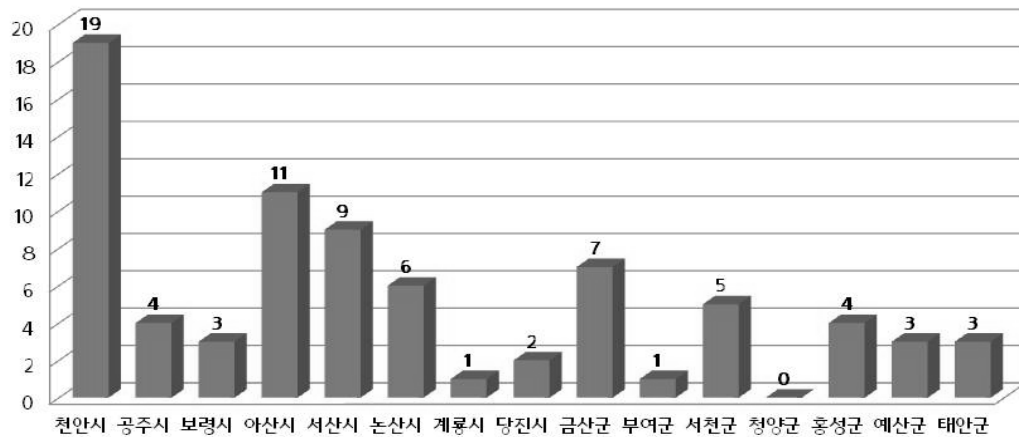


20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시군별 설립현황 : 천안>아산>서산>금산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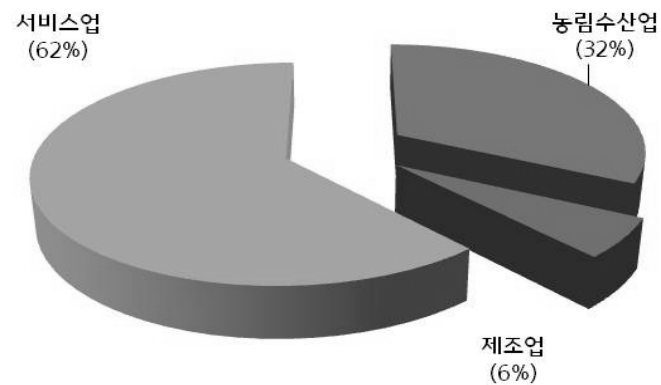


21

2 충남협동조합 현황

● 새로운 협동조합

-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전체의 94%)
- 교육서비스>유통서비스 등의 순임



22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CDI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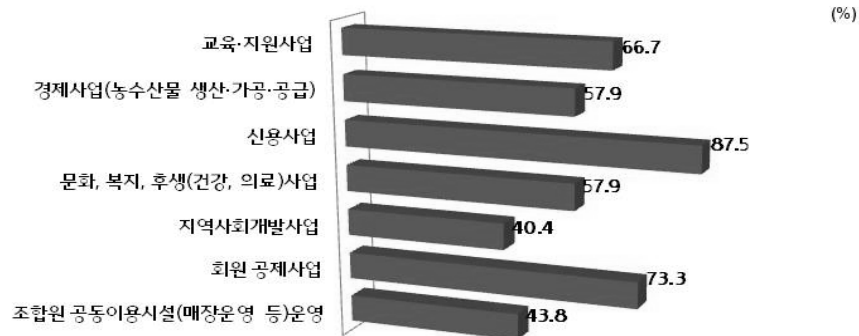
● 조사개요

- 조사일시 : 2013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 조사대상 : 충청남도 380개 협동조합
- 분석대상 : 회수된 240개 협동조합
 농협(125), 생협(9), 신협(45), 새마을(45)
 새로운협동조합(16) 협동조합
- 조사내용
 - ▣ 협동조합의 사업/교육/문제점/7원칙 준수여부
 - ▣ 협동조합간 협력/행정기관과 관계
 - ▣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기여 등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 신용사업>회원공제사업>교육지원사업 등의 순임
- 소비자/신용/새마을금고는 교육지원사업수행이 30%수준
- 신용/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수행이 4-7% 수준
- 소비자 및 새로운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사업 하지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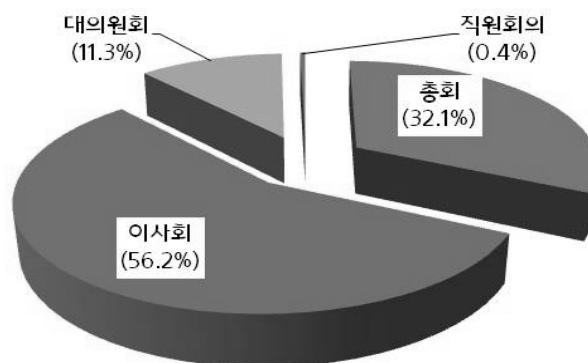


25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주요의사결정 구조

- 이사회>총회>대의원회 순
- 농협은 대의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약2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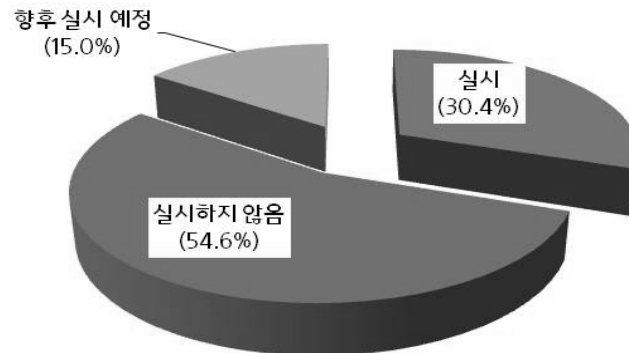


26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협동조합간 협동

- 신탁>생협>새로운협동조합의 현행 협력비율 낮음
- 새로운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협은 향후 협력비율 높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탁은 향후 협력비율 낮음



27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조합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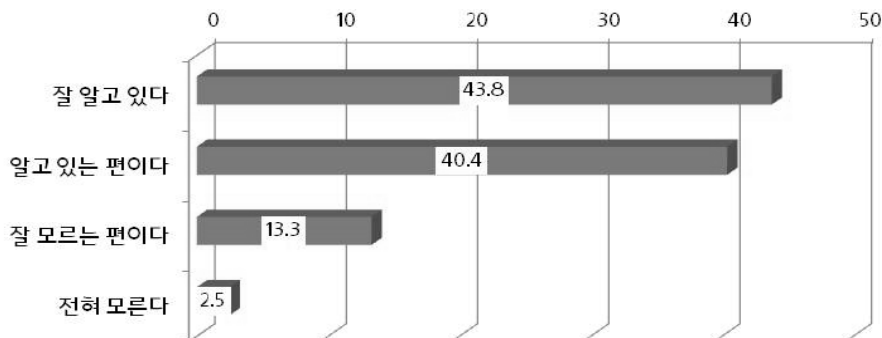
- 협동조합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재
- 조합원 확대의 어려움
- 취약한 자본구조
- 협동조합간 협력 및 협동의 부재
-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 중심의 조합운영
 - 협동조합원칙에 대해 모든 조합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농협과 생협은 조합원의 주인의식 부재>취약한 자본구조
- 신탁은 조합원주인의식 부재=조합원확대 어려움>정부간섭
- 새마을금고는 조합원확대 어려움>주인의식부재=신용사업중심운영
- 새로운 협동조합은 취약한자본구조>협동조합간 협력>조합원 확대 어려움

28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협동조합7원칙의 인지여부

-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2%에 달함
- 새마을금고/생협/신협의 '모른다' 응답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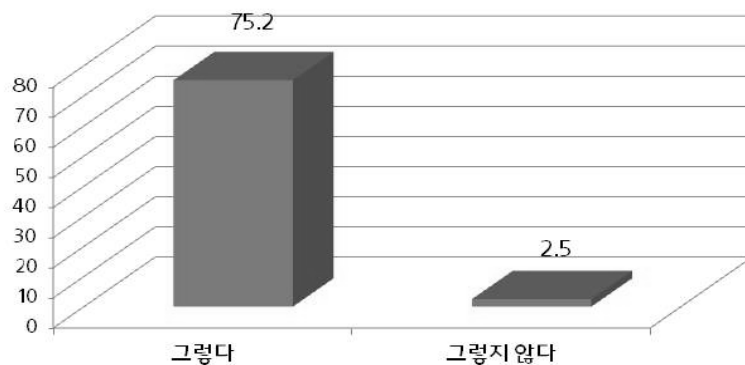


29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협동조합7원칙에 의한 조합운영 여부

- '그렇다' 는 응답이 75.2%, 생협이 85.7%로 가장 높음
- 반면, 신협/새마을금고의 그렇다는 비율은 65-68%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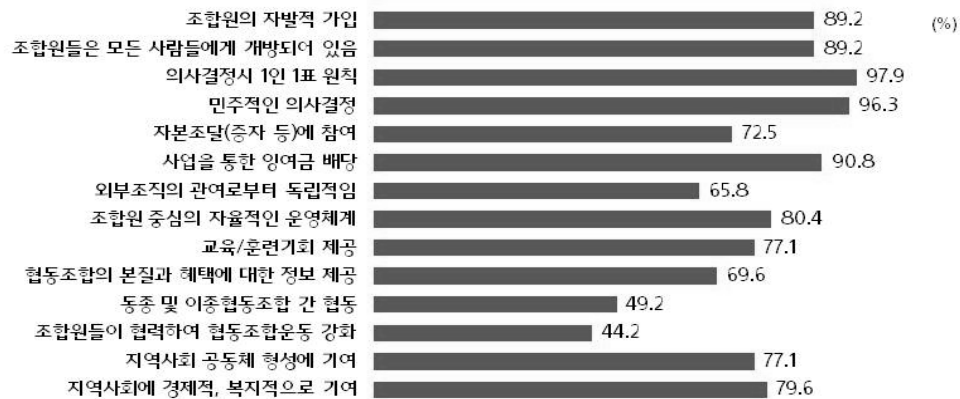


30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협동조합7원칙 준수여부

- 민주성/개방성/자발성 원칙은 높음
- 조합간 협력/독립성/조합원정보제공/증자참여 원칙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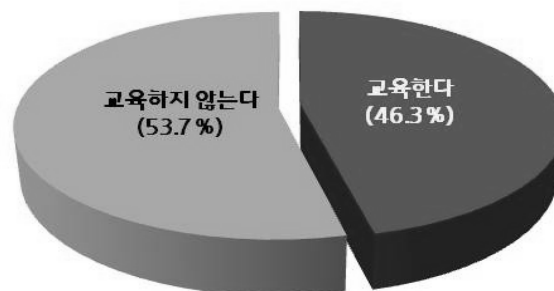


31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여부

- 신규조합원에 대한 53.7%가 교육하지 않는것으로 응답
- 실험은 28.9%만 교육하는 반면
- 생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은 66.7%, 68.8%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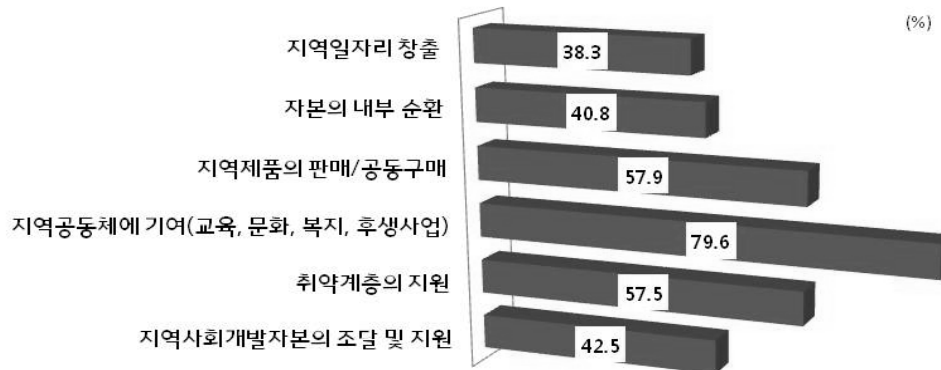


32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지역공동체기여>지역제품판매>취약계층기여 순으로 높고
- 반면, 지역일자리 창출>자본의 내부순환>자본조달순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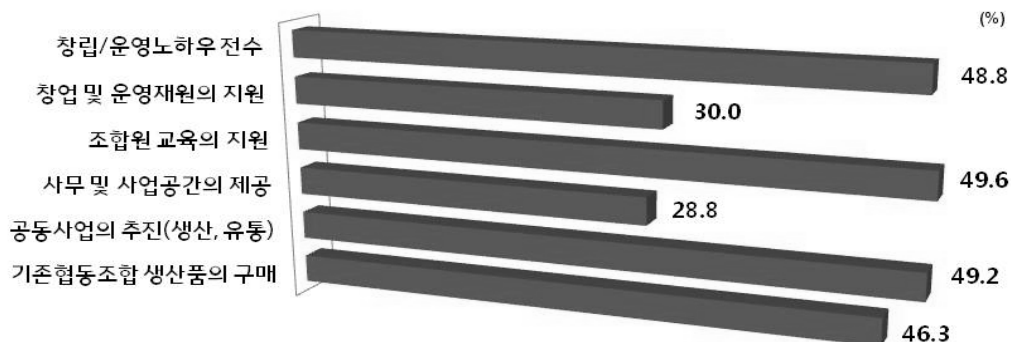


33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기존협동조합의 새로운협동조합에 대한 도움방식

- 조합원의 교육지원, 공동사업 추진, 창립운영노하우전수, 기존협동조합 생산품의 구매 등
- 실험/새로운은 자원, 새로운은 사무공간 도움 높음



34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행정기관과의 협력

- 협력유무 : 75.8%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 ❖ 농협(94.4%), 생협과 새마을금고(77.8%)가 협력하는 반면
신협(28.9%), 새로운협동조합(56.3%)만 협력
- 협력필요성 : 100.0%가 필요하다고 응답
- ❖ 농협(82.1%), 새로운협동조합(81.3%)가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생협(33.3%), 신협(35.7%), 새마을금고(25.0%)의
매우필요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국가는 제도적기반 마련, 새로운협동조합 창업지원, 자금지원,
경영 및 컨설팅 지원,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기초자치단체는 협동조합가치교육, 홍보 및 마케팅,
협동조합간 네트워킹, 소비자교육
- 중간지원조직은 종사자 역량강화
- ❖ 국가,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주도적 역할 강조

35

3 충남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

- 순환경제구축 >경제적 대안제와 사회적경제영역 확대(높음)
- 환경문제유발축소>인적자원개발활성화(낮음)
- ❖ 협동조합유형에 따라 항목별 상대적 응답차이 발생



36



4 분석결과의 종합

-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접근성 미흡**
 - 협동조합에 대한 최신통계자료 구득 어려움
 - 농협, 새로운 협동조합은 통계자료 생산
- **새로운 협동조합의 급속한 성장**
 - 일반 협동조합 중심의 급속한 창업추이
- **새로운 협동조합의 경우 소규모 협동조합의 난립**
 - 10인 이하 설립동의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등 영세한 협동조합으로 구성
 - 협동조합 목적사업 추진의 어려움 예상
- **서비스업 중심의 새로운 협동조합 창업**
 - 서비스업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창업

4 분석결과와 종합

● 협동조합간 협력사업의 미흡

- 신탁, 생협,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간 협력 미흡
- 기존협동조합은 새로운협동조합의 교육,공동사업, 창업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협력을 기대

●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한 관심 부족

-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음
- 조합원 주인의식, 조합원확대, 자본구조 등에 관심

●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7원칙 인지/준수

- 농협, 새로운협동조합 등이 원칙을 잘 인지함
- 생협의 원칙준수를 잘하는 반면, 신탁/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낮음
- 민주성/개방성/자발성 원칙준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39

4 분석결과와 종합

● 신규 조합원에 대한 교육 미흡

- 신규조합원에 대해 과반 이상이 미교육하고 있음.
- 특히, 신탁은 신규조합원의 1/3정도만 교육

●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역공동체기여, 지역제품판매, 취약계층지원에 기여
- 반면, 지역일자리, 자본의 내부순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함

● 국가,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주도적역할 강조

- 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및 필요성 인식
-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기대 낮음

● 협동조합은 순환경제 구축, 경제대안 제시 등에 기여

- 환경문제 유발축소, 인적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해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40



충남 협동조합의 발전방안

CDI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충남협동조합의 발전방안

- 풀뿌리 협동조합 육성으로 ‘지역화’, ‘지역순환경제’ 실현
 - 다국적기업/대기업 초국적, 초지역적 지역사회 지배
 - 창출된 이익 외부유출, 의사결정과정 지역주민참여 배제
 - 지역주민참여/소유에 기초한 협동조합 육성=>지역소비, 고용창출
- 협동조합을 지역사회개발 주체로서 기능 확장
 - 조합원 개인의 일상생활(생산, 소비, 금융)과 긴밀한 관계
 - 지역사회 제문제(빈곤,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산업육성) 지원필요
 - 캐나다 퀘벡주 지역개발협동조합(RDC)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제시한 원칙준수를 통한 운영 강화
 - 독립성, 조합간협력, 조합원정보제공, 증자참여 강화필요
 - 신규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특히, 신탁 등)
 -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
 - 중복 피산 부정농협

5 충남협동조합의 발전방안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고민
 - 사회적경제영역 확대, 지역순환경제구축에 기여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리더육성, 지역사회통합에 낮은 기여
 - 민주주의 교육, 공동체형성, 리더형성, 지역사회통합 등 기여방안
- 마을단위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
 - 마을을 공간단위로 한 협동조합 창업 필요(품앗이, 두레, 계 계승)
 - 마을내 다양한 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마을단위에서 해결
 - 홍성군 홍동면 사례
- 협동조합간, 사회적경제영역과 네트워크로 호혜의 경제실현
 - 기존 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함.
 - 조합원 교육지원, 공동사업 추진, 창업운영노하우 제공, 기존협동조합 생산품의 구매 등
 - 협동조합 영역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이종, 동종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및 연대구조 형성

43

5 충남협동조합의 발전방안

- 비금융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 활성화
 -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창업단계에서 자본수요 필요하나 지원금융체계 형성 미흡
 - 금융권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설립
 - 금융권협동조합이 새로운 협동조합 창업 및 사업자금 지원
 - 장기적으로 협동조합 전문은행 설립
 - 퀵백(데자르뱅크), 네덜란드(라보뱅크), 선키스트(코뱅크) 등
-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간 협력 강화
 -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호보완기능/파트너십
 - 지원방식(간접지원) : 협동조합연합회, 중간지원조직
 - 협동조합통계생산, 제도정비, 금융지원, 지역사회개발 협력 강화
 - 협동조합 생존률 향상에 기여

44

5 충남협동조합의 발전방안

- 조합원/협동조합의 역할
 -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한 이해 및 준수, 지역사회기여에 대한 고민
 - 협동조합간 협동에 대한 차별화된 시책추진
 -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모색 등
- 행정기관의 역할
 - 협동조합 통계자료의 통계자료 생산 및 가공, 제공기능 강화
 -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 도민의 협동조합 친화적 인식 부여
 - 협동조합 육성기금 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
-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조달 지원
 - 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재육성
 - 행정기관-협동조합-전문가 등 네트워크 기능 강화
 - 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기여 방안 제고

45



46

기 조 발 제

2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문 보 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어떤 의미인가 ?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는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①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써 ②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터전¹⁾으로써 ③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를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의 결사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의 지역적 유대감은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에게 주어진 물리적 환경으로써 우선 규정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물리적 측면에서만 이해를 할 경우 협동조합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지역사회는 조합원들의 생활터전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제반의 생활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그자체로 정체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내용으로 확장되거나 분화되며,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해야 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그러나 조합원 중심의 활동으로 인해 조합원 이외의 자들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오랜 시간 자기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역기능을 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자원을 외부로 유출하기도 하였고, 비용절감을 위해 사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을 외주화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합원

1) 현대에 이르러 모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유대범위가 동일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고려할 때, 지역의 동일성 및 근접성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중심주의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확대와 성장을 가로막는 퇴행의 요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고 보편화 된 것은 1995년 ICA 총회에서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을 채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기여라는 원칙은 전통적으로 조합원들의 편익과 이해를 도모하는데 충실해 왔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업, 서비스 부족, 에너지, 환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자, 협동조합의 사회 기여를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지역사회협동조합의 등장이 그것이다.

1970년대 경제 위기에 의한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퇴조는 협동조합에게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반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협동조합 경제 시스템에 기초해 살아갈 수 있는 큰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은 이렇게 조합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이처럼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의 유대범위와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단위로써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동경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작동되어야 하는 기초단위로 자리매김하였다.

21세기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특정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욕구와 이해에 부응하는 것으로 만족 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 시스템의 토양이 바뀌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선험적 인식에 근거한다. 지역에서 협동경제시스템의 실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체이자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이로운 협동조합이 많이 등장하고 주요한 경제 활동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성장하는 과정이 ‘승자 독식’의 논리로써가 아니라 협동조합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신념·사람·시간·협동’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2. 협동조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난 2012년 3월 Euricse(European Research Institute on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와 ICA가 공동주관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협동조합 이해 추진 회의’가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많은 학자들은 협동조합이 경제에 기여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하였다.

첫째, 협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줄이는 데서 적지 않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및 대다수 시민들의 복지 증가에 기여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니는 독특한 소유권과 거버넌스 원칙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소유권 구조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시장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독점 형성을 방지하며 소매 가격을 낮추고 혁신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간다.

둘째, 협동조합은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금융, 농업 등 상당한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분야에서 그러하다. 유럽의 협동조합 은행과 북미의 신용조합은 은행 시스템에서 안정화 역할을 해 왔다.

이전 경기 침체 시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협동조합의 안정화 역할은 위기시기에 결정적이다. 나아가 협동조합의 존재는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의 대응능력을 증진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한다. 협동조합은 이윤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유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 협동조합은 투자자 소유 기업이 무관심하고 정부와 같은 공적기관이 공급할 수 없는, 마이너스는 아니라도 낮거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종종 생산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서비스는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와 이외 개인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마이너스 수익성 경우, 협동조합은 추가적인 자원 -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 등 - 을 끌어들이거나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경영 맥락과 관계없이 초기 단계에서 자원 활동과 기부가 특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협동조합은 종종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자원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고려하고, 이에 관여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에 관한 ICA 협동조합 제3원칙에 상응하게, 수많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잉여 중 일부를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는 공유의 비분할 적립금에 배정한다. 일부 국가는 협동조합의 장기적 관점을 법으로 구체화해 협동조합이 연간 잉여의 일부를 비분할 자본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자산과 이윤의 일부분을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익 증진에 써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은 보다 공정한 소득분배에 기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이윤 축적을 생각지 않기에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청구함으로써 자원을 재분배한다.

이처럼 협동조합 사업체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증가를 지원하며, 부의 보다 균형적인 분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역시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있다.

3.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 -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의 외부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에 있다. 기존의 지역경제개발 전략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외부기업의 지역 유치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 주민들은 소비주체 또는 지불주체로 전락하게 되어 돈이 지역 사회에서 재투자되거나 순환되지 못해 지역사회는 가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왔다.

이에 대응해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생산, 유통,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경제 주체로써 협동조합은 매우 긍정적인 모델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지역 당사자들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탈지역화 된 투자자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영리기업에 비해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imberly A. Zeuli(1998)는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7가지를 꼽고 있다.

① 독점적 시장력에 대항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 :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를 통해 독점적

시장 기업에 대응할 수 있음.

- ②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수익성이 낮아도 지역사회와 주민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음(예. 돌봄, 교육, 육아, 신용 등)
- ③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생산자 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생산물을 판매하여 조합원과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
- ④ 지역사회의 통합 : 소지역에서 협동조합은 주민들 간의 관계의 기회와 장을 제공
- ⑤ 지역인구의 증가 : 협동조합 사업체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인구를 증가
- ⑥ 인적자원의 개발 : 협동조합 활동 및 사업은 그 자체로 지역의 리더십 개발의 기회로 기능(예. 의사소통, 집단적 문제해결 등의 훈련의 장)
- ⑦ 환경문제 유발 축소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음(황영모, 2012)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의 현상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고용과 임금에 대한 연대의식, 생산과 구매의 연계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에게 ‘혁신’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해외 협동조합 사례

1. 뉴돈(New Dawn) 유한회사

- 소재지 : 캐나다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 설립 : 1973년, 비영리 부동산 포트폴리오기업집단
- 목적 : 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한 지역사회 공동체 이익 추구 (협동조합, 신협, 노동 및 노인 관련 주민 단체들이 참여)
- 사업 : 부동산 포트폴리오(저소득층 주택, 노인보호시설, 치과 등) 운영, 지역사업 투자 기금 회사 운영 등
 - 설립 당시 은행 차입을 통해 폐건물 구입 후 주택 및 부대 시설 유지
 - 폐지되는 군사 시설을 인수해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해 노인 가정 돌봄 사업을 실시(노인 가구와 일반 가정가구를 입주시켜, 일반가정에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특성 :

- 1인 1표 제도와 공동체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 협동조합 형식을 변형.
- 지주회사로서 여러 자회사를 보유한 비영리 추구
-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추구
- 자원봉사들에 의해 운영

※ 시사점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섬.
- 전통적 협동조합 방식에 메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방식을 취함
- 조직 운영 형식의 융통을 취함에도 1인 1표 제도를 두어 협동조합의 전통을 계승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주요한 방법으로 부동산이라는 수단을 채택하였으며, 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 : 그레그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한살림, 2012)』 재구성

2. Chac Lol 협동조합 : 유카페 개발협동조합 프로젝트

- 소재 : 멕시코 유카탄 반도 매리다
- 설립 : 1989년 Chac Lol 협동조합 설립, 1994년 프로젝트 시작
 - 6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 소규모 가내 신발 수공업자, 소규모 옥수수 제분 및 토띠아 가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트랙터, 운송용 트럭, 농업지대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농장 노동자 200명 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
- 목적 :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지역 농업 및 경제 보호와 일자리 문제 해소
- 사업 :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 BCA Holdings(뉴돈의 자회사로 기금운용회사)와 멕시코의 차핑고 대학, Chac Lol 협동조합의 동업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
 - 사업 진행과 함께 유카타 대학, 국립 인류학과 역사학 연구소, 마야브 대학 합류
 - 호텔 사업 (마야생태공원 조성하고 마야 스타일의 숙박시설 설립)
 - 식물원과 수목원 조성(식물원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종을 보유)
 - 약초재배 단지 조성 (취약한 의료시설 등을 고려해 약초의료 클리닉 건립계획)
 - 관광업(마야인의 실거주지, 유적, 마야인의 언어 등을 활용한 전통 마을)
- 특성 :
 - 지리적, 지형적 유사성을 갖는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과의 공동사업 방식으로 앞선 경험과 기술 등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접근
 - 국내외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지역과 문화에 친화적인 신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
 - 국제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조합원 대표와 조합원은 영어 학습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

※ 시사점

- 선진 기술의 이전과 해외의 경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성장을 병행
- 전문가 그룹 및 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많은 준비기간을 통해 사업 방안 마련
- 지역 자원의 활용과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부각하는 사업의 개발

자료 : 그레그 맥레오드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협동조합연구소, 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한살림, 2012)』 재구성

4.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과제

※ 이 장에서는 외부 환경으로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을 서술하지 않겠다.

IMF 이후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양적 성장을 해 온 사회적경제는 ‘정책과 행정의 과잉’이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도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나, 그 구성 요인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과제를 서술한다.

1) 지역차원의 지역순환경제 비전 수립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주변화 되어 왔다. 이는 협동조합이 블록화 되기보다는 개별화 되어 왔기 때문이며,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사업 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1) 비전 수립의 기초

특정 유대 관계에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상하거나 기존 사업 조직을 중심으로 순환체계를 구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좀 더 큰 시각으로 지역차원의 협동경제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의 경제 활동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

가격과 이윤측면에서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거리, 교통 등의 문제로 가격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

하기도 한다.

둘째, 공급의 독점으로 인해 가격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문

생활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문으로 공공요금 에너지, 교통 등이 그러하다.

대안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가 현재의 공급 질서와 다른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공유경제 및 재사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개별소유에서 공동소유로, 구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생활재들은 무수히 많다. 주택, 차량, 의류, 가구, 가전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구매비용이 너무 과다하거나 사용빈도가 낮으나 필요한 생활재들을 사고의 전환을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다.

넷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지 못하고 소비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고 끊임없는 지불을 통해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태양열을 이용한 자가발전이 그러하고, 품앗이 활동을 통한 서비스 교환이 그러하다.

이러한 비전 수립이 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기초정보의 수집과 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필수이다.

또한 지역 자원의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자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진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분석과 민간 자원의 파악과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장·단기 계획에 따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기준의 마련

퀘벡, 몬드라곤, 임실치즈 마을, 성미산 마을, 원주 등의 사례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절대적 시간’과 그 시간을 이겨 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 자원, 역량 등의 제한성으로 인해 끈임 없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선택과 집중은 비전과 목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비전과 목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집중은 상황논리에 좌우되기 쉽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은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

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체는 주민과 활동가이다.

‘주민 조직화’, ‘주민 주체’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지역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사업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는 촉진자로 역할 하는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과 절대적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든, 지역의 필요를 조직하는 과정이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촉진자로 역할 하는 활동가들의 전문화와 자기 성장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은 사회적경제 진영의 고령화와 구태의연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동이 개인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 과정은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적 활동이나 소모적 활동이 아니라 분야의 기능인으로 성장하거나 전문화 될 수 있는 측면을 주되게 고려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이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①긴급성 ②확장성 ③지속성 ④고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긴급성이라 함은 필요함에도 결핍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확장성은 대중성과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긴급성과 맞물릴 경우 제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IMF 이후 여성의 취업 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 및 가족 돌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마련되고, 주요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 그러하다.

지속성은 지속적 수요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불 가능성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불가능성의 문제는 자기 부담률의 조정을 통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고려할 때 대안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정성은 외부 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이다. 즉, 반드시 지출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들인데, 의·식·주·교통·에너지 등이 그러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소비 또는 지출 규모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유경제’가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은 무궁무진하다.

2)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개발)협동조합의 확대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드는 협동조합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보다는 지역 차원의 보편적 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이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무방하다.

자본 동원력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보다는 일반협동조합이 조합원 확대에 좀 더 유리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다는 점을 중심으로 놓고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특정 조합원 그룹의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협동조합은 다목적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목적성을 갖는 협동조합은 세부 사업 단위 실현을 위한 사업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새로이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법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업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 지역의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지주회사로서의 위상을 갖고 사업조직은 자회사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시키고, 사업과 활동을 분산시켜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자원의 효율성과 외연의 확장, 사업의 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할 수 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개인과 조직의 물적 출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는 것이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농협, 신협, 생협,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공헌기금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자원조달에 있어 정부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물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연대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의 수준이 그러지 못해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기초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 상태로 전락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진영의 협력과 연대의 목적 및 목표의 명확화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성장 해 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연대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사회경제연대체 등이 조직되고 있는데, 상호 관계성을 맺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대 활동의 이니셔티브나 멤버십의 공감대 및 유대감의 차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상호연계를 통한 관계 형성을 통해 통합적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칭하지 않고 사회적경제라 칭한다.

(1) 내부 거래 활성화

요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적경제 진영 내 상호협력에 기초한 내부 거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와 ‘연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 거래는 관련 당사자 집단의 결의와 관련 당사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조직 내부에서 내부 거래에 대한 필요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조직이 클수록, 사업 기간이 오래되어 거래 상대방이 안정되어 있는 곳 일수록, 물품 조달 및 거래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한 조직 일수록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 의사결정을 한다 해도 반드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부정적 신호는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내부 거래를 고민할 정도로 사회적경제의 볼륨이 커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상호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수요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에 관한 필요와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며, 생산품의 다양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 할 때, 지금이 내부거래를 이룰 수 있는 상호간의 파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거래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내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의단위가 부재해 과잉과 결핍 사업 분야가 대비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물적 기반 형성을 위한 기금 조성

‘내부 거래’와 함께 ‘사회적경제 진영의 연대 기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제한 외부의 금융시스템 마련이나, 공공기금에 의한 기금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는 위탁사업을 증가시켰는데,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자금의 용도와 규모가 통제되지 않으며, 장기적 계획에 의한 사업의 지속성 보다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탁사업의 확대는 사회적경제 진영을 활성화 시킨 긍정성과 함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기발전전략 부재를 낳은 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기금 조성은 위탁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자율과 자치성에 기초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기반을 갖추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진영이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 현황을 공유하고 일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역시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협동조합, NPO, 노동조직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함께, 적더라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공동으로 출연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 조성은 사회적경제 진영 상호간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필요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점에서 사회적경제 진영 내의 내부 거래와 병행된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3) 코디네이터 기능과 자원 혼합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관협력에 기초한 위탁사업이나, 사업자 지정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IMF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 된 측면이 크고,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행정에 의한 공인 과정이나 선별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설계는 행정에 의한 공인과정과 선별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 실무 기관으로써 또는 인큐베이팅 기관으로써 각종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개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강내영 2008)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칭하고 있는 각종의 지원센터들은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자원혼합의 연계 기능이나, 이 과정을 위해 동반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함께 하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개별의 이해 관계를 떠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과 통합을 매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조직이다.

그렇기에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상호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신뢰와 통합 기획력, 다양한 자원을 혼합할 수 있는 자원 동원력이 중요하다.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으로부터 규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역할 할 것이가에 대해 사회적경제 진영은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체의 역량 강화 -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

사회적경제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 모두를 위해 활동 주체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어 ‘교육 과잉’이라 할 정도 이다. 그러나 그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그 교육의 초점은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초 교육과 실무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은 철학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운영 방법론을 찾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다.

주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실천 할 수 있는 구상과 방법론에 대한 유연함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활동가의 역량 강화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사업과 생활에서 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력이 풍부해지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배워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공급되는 교육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익히고 터득하는 자기 학습이 필요한 때이다.

모든 것을 학습의 장으로 학습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과 만나는 과정이, 연대 활동의 장애를 만나는 순간이, 타지역의 사례를 접하는 순간 모두가 학습의 기회이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석과 종합을 통한 과정이 우리에게서 상호 교육이며,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공통의 해결방법들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논의를 상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 또한 예민한 이슈들을 공론화 하고 그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차원의 합의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실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연대 활동의 과제이자, 연대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그레그 맥레오드(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협동조합연구소, 이인우 역
- 강내영(2008) 「새로운 시도, 일본의 중간지원조직(中間支援組織)을 중심으로」, 풀 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문보경(2013) 「사회적경제 최근 동향과 과제 -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남고용포럼 토론회
-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 구상」, 전라북도 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 협동조합연구소(2012)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한 살림
- icoop(2013)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이해 촉진」, Euricse, 이경수 역

토 론

1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의 관점

김 제 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의 관점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1.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강화 모색

아직 취약한 기본법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의 강화 노력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의 특성상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나 협의회를 만들어가도록 촉진함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경제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신탁의 설립도 모색함이 필요하다.

2. 지역공동체와의 결합 추진

사회적경제는 지역구성원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 지역공동체의 공동기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키워나가야 함. 당장 공동기금 조성이 어렵다면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능과 유희자원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호혜적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추진함이 필요.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한 노력 집중 필요. 또한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매상들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3. 공공복지,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사업체 활용 적극화

4. 정책방향

- 1) 사회적경제 인지적 행정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세부적 개별정책 및 중앙정부 사업 전달에서 벗어나 종합적, 통합적 인식 필요

특정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의 협업,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공급자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사회적경제의 현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함.

- 2)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발전과 공동체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3) 구체적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즉 시군별 현지화가 추동되어야 함. 아울러 주거 보육 교육 환경 에너지 등 시장경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확보하도록 모색되어야 함.
- 4) 공공부문이 우선조달 정책의 실효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여야 함. 일반적 미스매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공공에서는 성과평가, 행정평가의 항목으로 반영되어 공공조달의 부서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발의 선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함.
- 5) 사회적경제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리빙랩, 시티즌랩과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참여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 운영하여야 함.
- 6) 민간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매칭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의 사회적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지역기업과 도민의 참여를 통한 자본금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펀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토 론

2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문

박 대 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토론문

박대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물리적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즉, 물리적 공간 안에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은 결국 지역사회로 귀결된다.

지역의 협력적 경제시스템 토양이 바뀌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이 시장화되는 경향들은 많이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경제도시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순환경제와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발제문에 언급된 협동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 경험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의 주요 사회적경제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경험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결국 신념, 사람, 시간, 협동이라는 명료하게 정리된 요소가 현실에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 사회가 체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충북에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논의테이블을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각 진영을 분리하는 사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 미숙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하다. 아직 우리에게 사회적경제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 낸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듯 하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지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정량적인 성과보다는 본질적인 성찰과 충남에 맞는 접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충남도에서 고민하는 협동조합 발전 방안은 근본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단이면서 성찰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원칙에 대한성찰과 교육 및 네트워크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욕적인 행정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주체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주체 발굴을 위한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다.
2. 개인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상과 방법론 부재에 공감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별 첨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충북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생활협동조합이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 자활사업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마을공동체운동 방향 토론회, 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협의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음.
- 이에 충북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초기 논의를 거쳐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큰 틀의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게 됨.

2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가) 제안내용

- 공공의 사회적경제 사업체 지원 육성 사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시니어클럽, 협동조합 등으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통합적발전 전략적 측면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 사업들이 개별 사업체의 발굴 육성에 집중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과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망이 취약함.
-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제도적 성숙에 비해 시민사회진영에서 새로운 대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함으로써 지역적 실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7.1), 협동조합기본법(2012.12.1.) 등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있으나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이 부재함
- 공공경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경제로 구성되는 지역경제 3주체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기 위해선 협동사회경제의 영역을 키우는 시민사회의 통합적 실천이 시급함.

동시에 공공적 사회투자를 통해 소통-신뢰-협력으로 이어지는 협동사회경제의 육성을 위한 협동사회경제에 대한 사회투자도 매우 시급한 현실임.

- 제도적 성숙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논의와 합의에 기초한 “협동사회경제 발굴 육성을 위한 시책과제”의 발굴과 시민제안 사업을 통해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의 정립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순환과 공생, 호혜와 협동의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간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를 제안함

3. 지역 여건과 주요 활동내용

1) 지역의 분위기와 요구

- 충북지역에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장애인작업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
- 특히 자활사업 당사자들과 사회적기업에서 정부의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자원의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수년간 피력해 옴
- 그러나 지역의 추진동력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공통의 이슈를 찾지 못하면서 떠도는 바람으로 남게됨
- 최근 사회적기업의 급속한 확대와 협동조합의 증가는 다시 영역을 넘어선 지역차원의 교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특히 올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지역경제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핵심적 과제로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이 제안됨
- 이에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몇 몇 단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체 사회적경제 단위에 제안하게 됨.

2) 충북지역 사회적경제 확대 경과

일자	사업내용	비 고			
2000년	자활사업 시작				
2003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실시				
	－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지역주체 발굴에 기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2008년	일하는 공동체-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공동 사회적경제 논의테이블 구성				
	－ 사회적기업 허브구축사업 진행				
	－ 중부권 사회적기업 인증지원업무 수행(일하는 공동체)				
2009년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업무(일하는 공동체), 로컬푸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진행				
2010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컨소시엄 운영(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마을기업 시범사업 실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시행				
2011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컨소시엄 운영(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2년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설립 －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협동조합 친구들 활동 시작				
2013년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 위탁(노동부/행안부/충청북도/진흥원) － 협동조합 지원업무 위탁(기재부/진흥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경제센터/시민재단컨소시엄) 충북광역자활센터 설립				
	5.16 충북 마을공동체 운동의 발전 방향찾기 토론회 7. 5 충북협동조합 ‘국제컨퍼런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발전’ 7.17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충북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시니어
개수	100	57	50여개	12개	6개

토론

3

협동조합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소고

남 원 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소고

남원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방문해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합 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다. 적지 않은 수가 소상공인 진흥원의 소상공인 협업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됐으나 자금지원이 늦어지며 개점휴업상태를 유지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지 않고 설립해놓으면 지원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심리 혹은 동아리 수준에서의 사업모색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1. 협동조합은 권리와 함께 의무의 복합체

충남의 경우 새로운 조합들 중 5백만 원 이하 출자금이 37%, 1천만 이하가 23% 등 1천만 이하가 전체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출자금 규모가 조합의 성공요소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수준에 도달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우 출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조합원 정직원이 되기 위해 1인당 900만~13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협동조합 접근은 매우 느슨한 것이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송두범 센터장의 실태 조사결과에서 협동조합7원칙 준수여부와 관련해 민주성/개방성/자발성 원칙에 대해서는 높지만 조합간 협력/독립성/조합원정보제공/증자참여에 대해서는 원칙이 낮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들을 둘러보면 이러한 조합원의 의무에 대한 자각이 없어 파산하거나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 운영을 방관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의무에 대한 자각에서 협동조합사업을 위한 기금 등이 여실히 필요하

고 지속가능한 것이지, 무자각 상태에서의 간접지원은 직접지원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적 관계를 만들 뿐이다.

따라서 1인1표, 민주적 통제라는 ‘동업의 시스템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협동조합이 가지는 의무적 요소에 대한 학습, 강조가 필요하다. 의무를 이해해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얘기할 수 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의무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의 지역사회 공헌만을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낼 뿐이다. 협동조합에서 권리와 의무를 양 날개란 점이 우리 운동에서 망각되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2. 협동조합의 시작은 조합이 아니라 협동, 유년 청소년 때부터 체화해야

협동조합은 협동을 위한 조직적 형식과 결과이지, 조합을 해야 협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최고선은 아니란 뜻이다. 홍성에서는 협동조합이 아니지만 기본법 협동조합보다 더 협동조합스럽게 운영되는 ‘뜰’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이 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인격은 선택일 뿐이다.

결국 문제는 협동이란 가치관과 행위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연 협동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체화하도록 하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원주, 홍동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도 해외에 못지않는데 왜 생태계가 넓어지지 않았는가는 사회적 환경 탓도 크리라 생각한다. 권리의식은 커졌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서는 환경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정녕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교육, 특히 유년시절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협동조합 교육과 학습은 상당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의 체화된 교육과 경험이 이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협동이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초등·중등교육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에서 유년, 청소년을 위한 변변한 협동조합 교재가 아직 없다는 점은 되돌아봐야할 사항이다. 교재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보면 유년, 청소년을 위한 협동조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

년생태교육 등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대안적인 유년, 청소년 프로그램과 별도로 협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연구되고 실천돼야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넓어지고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달에 문을 여는 성남 북정고 학교매점협동조합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있다.

3. 협동조합 역시 기업 ‘법인격’ 이다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 왜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적 접근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어떻게 경영되는지’가 제대로 이해돼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보경 집행위원장이 인용한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에서 그래그 신부가 강조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나온다. 협동조합의 정신은 간데없고 사업의 영위만이 남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에서 만나본 협동조합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다른 조합원 참여가 쉽고, 동업의 방어기제가 충실한 또다른 ‘법인격’으로 사고하며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중간지원조직들이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성급하다느니, 자칫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협동조합이란 형태가 이래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협동조합 7원칙을 모르고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야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협동조합이란 게 이런 것인데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 일일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이해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게 협동조합운동적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협동조합 7원칙을 잘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잘 경영돼야 한다. 우리는 몬드라곤에서 노동인민금고기금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기술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혁신과 창의는 또 다른 협동조합 지속가능성의 기

반이며, 경영의 주요요소다. 전 세계, 아니 우리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니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잘 구축됐다 하더라도 혁신과 기술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과제다. 정체되면 협동조합조차도 사그러진다. 자본주의적 경쟁력과 다른 의미에서 말이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협동의 기본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과 창의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혁신과 기술은 마케팅이나 회계, 제조기술을 총괄한다. 경영적 측면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협동조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마케팅 요소 등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에 맞은 경영교육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든 협동조합운동이든 이 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센터의 일련의 접근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런 접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지만, 운동이란 대중의 눈높이, 이해요구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대중추수주의로 빠지지 않는 것은 운동가의 몫이기도 하다.

02

제 1 분 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제1발제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제1토론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제2토론 이현민(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제 1 분 과

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이 인 우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오후 1시-3시
충남 사회적 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발제 자료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발제자료

목 차

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기본 시각 정립

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3 협동조합시스템과 지역개발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자료 소개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기본 시각 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을 보는 기본 시각 2. 지역개발을 보는 기본 시각 3.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연결 고리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이론 지역별 분포 2. 지역별 협동사회경제 모형과 지역개발 효과 3. 지역단위 협동경제 모형과 분석 요소
협동조합시스템과 지역개발협동조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시스템의 특징 결정 요소 2. 협동조합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 3. 지역개발협동조합 모형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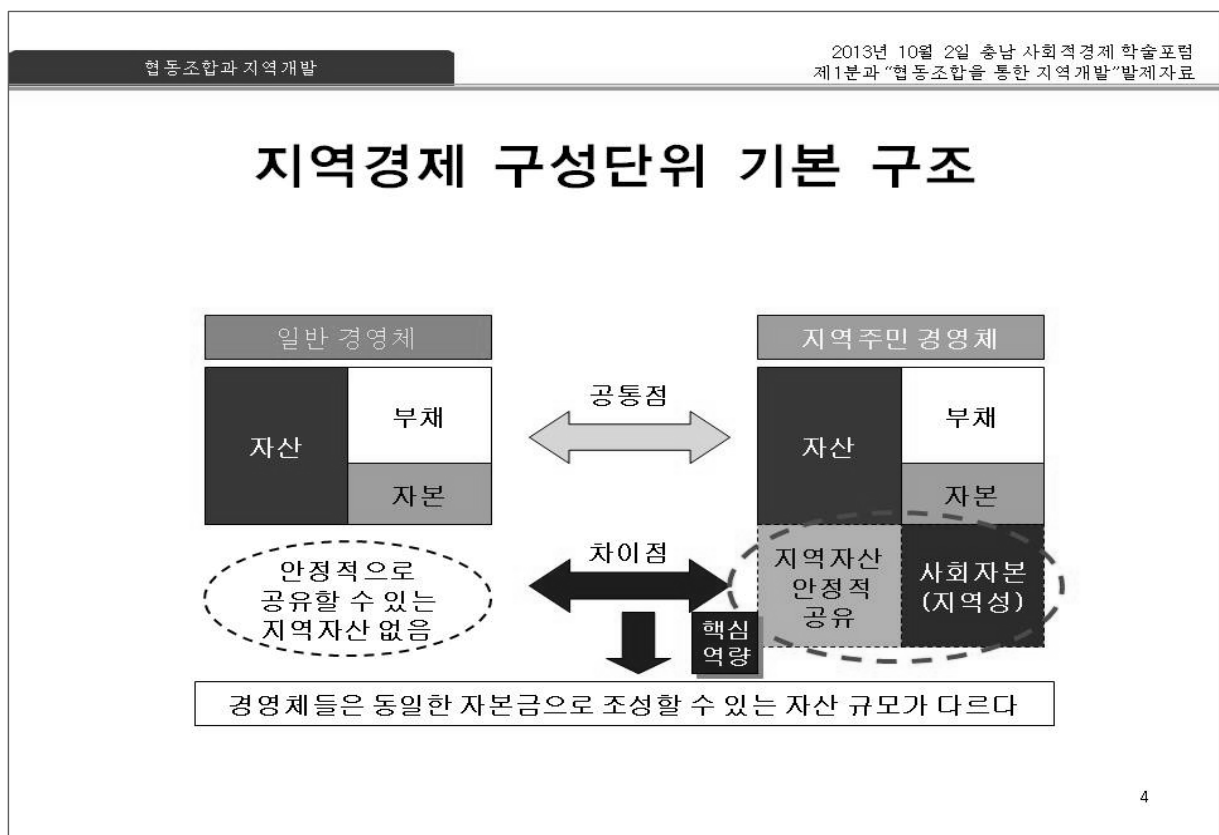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기본 시각 정립	
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3 협동조합시스템과 지역개발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협동조합을 보는 기본 시각		
작성	1. 협동조합의 논리적 기원 : 시장실패 완화가 목표 2. 협동조합의 역사적 기원 : 조합원 이익만 추구 3. 협동조합의 국가적 기원 : 특정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적시	1. 완전경쟁 시장구조에서 협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가? 2. 소비자를 위해 생산자를 착취하는 활동은 정당한가? 3. 전국단위와 지역단위 협동조합에서 우선 순위는?	
성찰	1. 협동조합의 제도적 기원 재인식 : 사회적 경제의 일환 2.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 재인식 : 협동경제 3. 비즈니스모델 아닌 지역자원 결합체 : 지역협동경제	
		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지역개발을 보는 기본 시각		
작성	1.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가? 2. 지역경제 지표와 지역주민 삶의질은 정비례하는가? 3.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은 정비례하는가?	
적시	1. 지역경제는 외부기업 유치를 통해서만 발전하는가? 2. 지역발전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3. 지역경제 왜곡현상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복원되는가?	
성찰	1.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 목표함수 : 인간의 삶 2.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 수단 : 인간의 역할 3. 목표와 수단을 매개하는 가치 : 지역과 인문학 재등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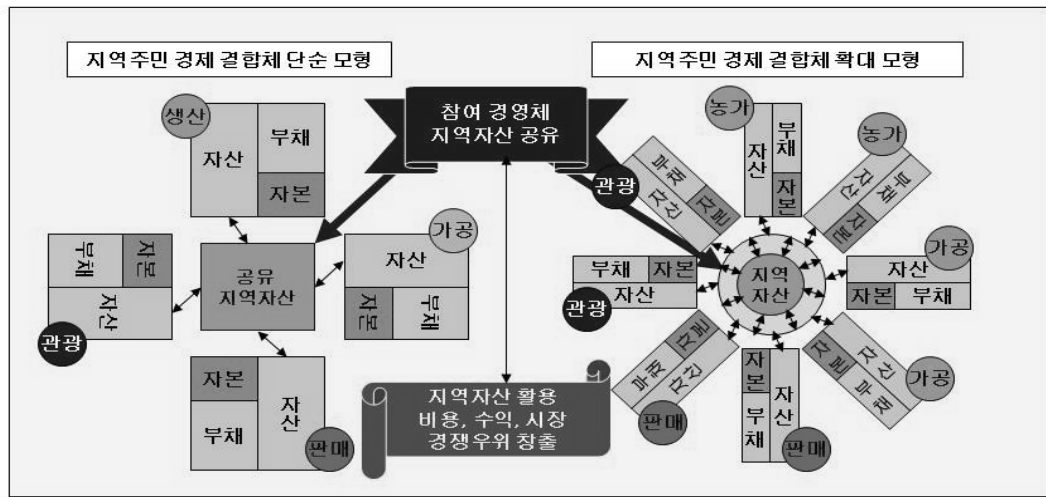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연결 고리	
접근방법 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범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실증론적 접근방법 정립 2. 재산권자 중심 필요, 활동, 가치 개념들의 재구성 3. 목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설적 접근방법 정립
협동조합 개념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조직화의 방법 중 하나 2. 타 사회적경제 조직보다 경제활동 안정적으로 조직화 3. 영리기업체보다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놓인 조직
협동경제 연구 주안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자원을 통한 개별 협동조합 경쟁우위 창출방법 2. 지역 내 경제활동들의 안정적 조직화 과정 기여역할 3. 협동조합 불안정성 완화 시스템 구축 방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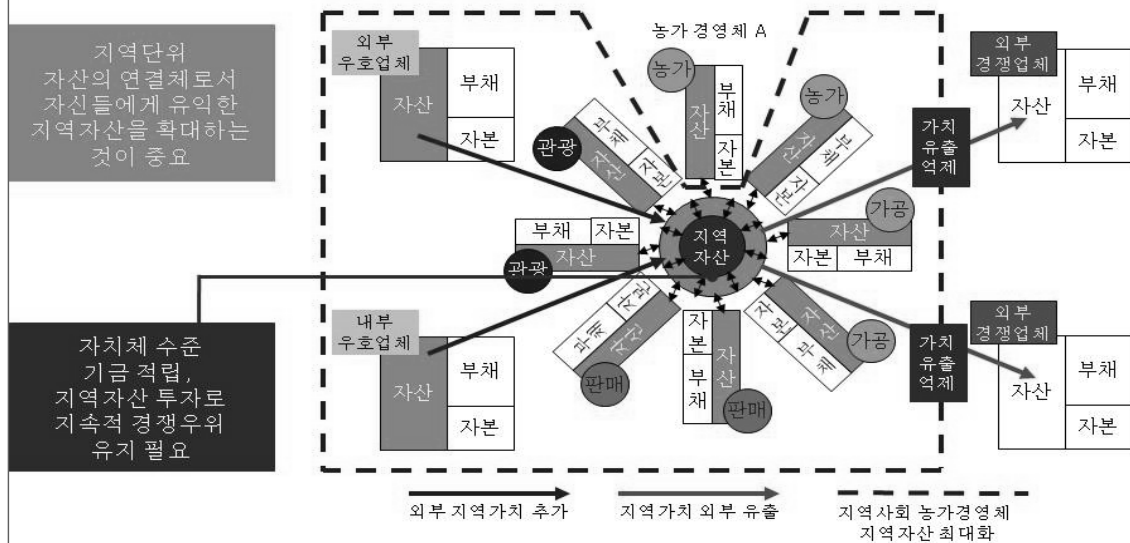
4

지역경제 조직구조 : 지역자산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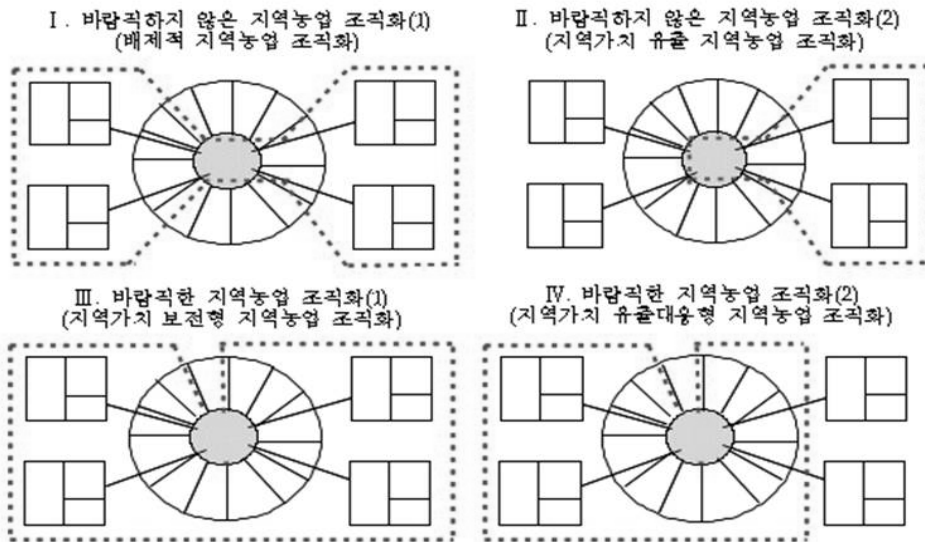
5

지역경제 복합체 : 지역자산 활용 경쟁우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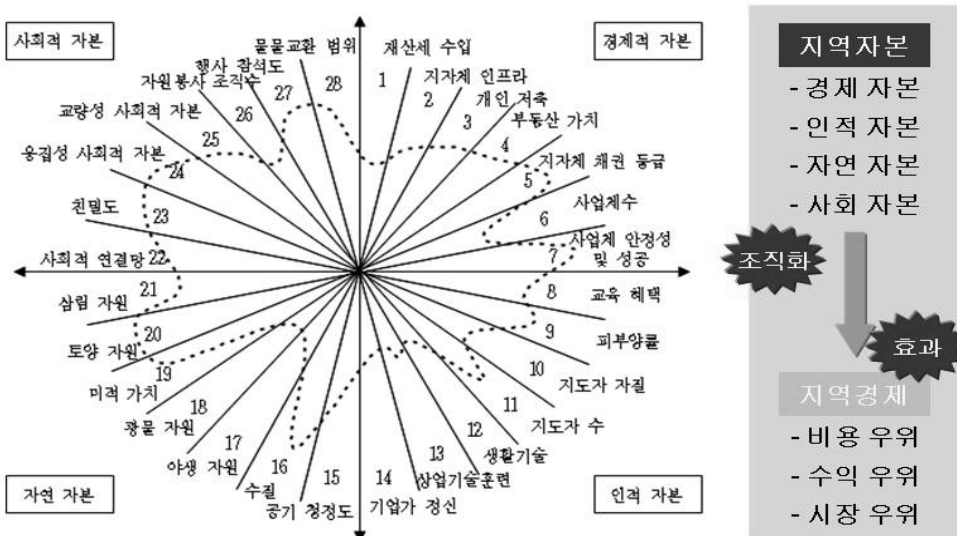
6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연결 고리 : 지역자산 확대



7

지역개발 목표와 지역자산 확대 실증론적 개념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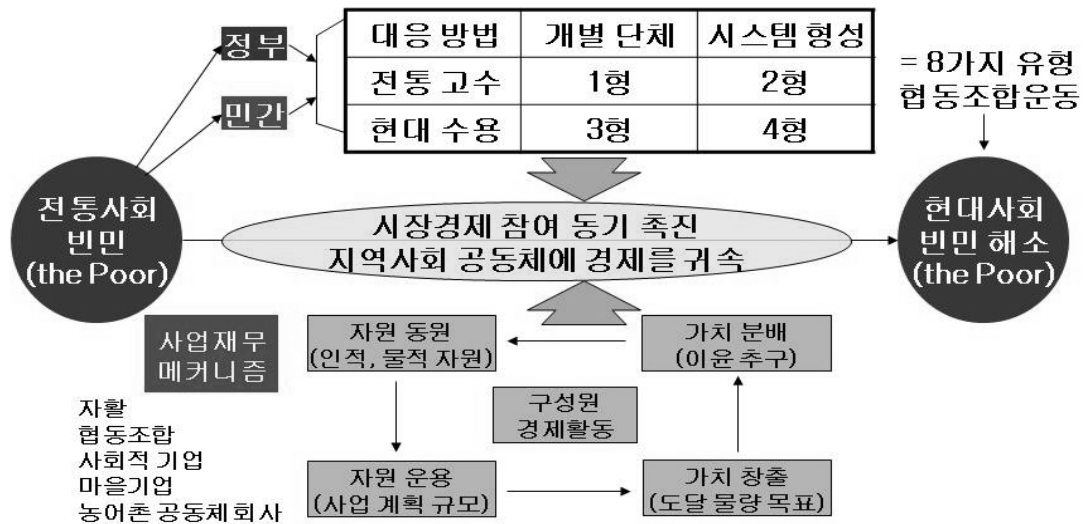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기본 시각 정립
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3	협동조합시스템과 지역개발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주요 이론 지역별 분포	
유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경제 :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2. 협동조합 : 스페인, 이탈리아(사회적 협동조합) 3. 기타(제3섹터, NPO, NGO, 제3의 길) : 스웨덴 등
북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 미국, 캐나다 2. 기성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 : 미국, 캐나다 3. 기타(NPO) : 미국
아시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 일본, 한국, 타이완 2. 기성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 : 한국협동조합기본법 3. 기타(제3섹터 변형, NPO, NGO, 워커스 콜렉티브)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지역별 협동사회경제 모형과 지역개발 효과		
개별단위 운동 모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국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숫자만 증가 2. 프랑스 등 : 이론은 발전, 시스템으로는 미형성 3. 미국 : 생산적 복지, 재단 활동 형태로 발전 	
지역단위 협동경제 시스템 형성 모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페인 몬드라곤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 트렌티노 주 3. 캐나다 퀘벡 주 	
지역개발 효과 보유 모형들의 차이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 : 전통적, 현대적 필요의 진화 2. 수단 : 정부 주도, 민간 주도 조직의 활용 3. 안정성 제고 방법 : 조직, 제도, 자원 	
		11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2013년 10월 2일 충남 사회적경제 학술포럼 제1분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발제자료
지역단위 협동사회경제 모형과 안정성 제고방법		
스페인 몬드라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 협동조합 단독형 조직체계 2. 제도 : 참여 조합 협약, 조합원 협약, 구성원 협약 3. 자원 : 교육(창업), 금융(운영), 연구(혁신) 지원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 트렌티노 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 지역 협동조합, 영리기업 컨소시엄형 조직체계 2. 제도 : 컨소시엄, 적립금 세제혜택, 자본조성 법제화 3. 자원 : 제도의 발달로 공동형 자원 개발은 미흡 	
캐나다 퀘벡 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 : 지역 기성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결합형 2. 제도 : 정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목표를 정책화 3. 자원 : 조직별 공동 자원을 자급형으로 지속 개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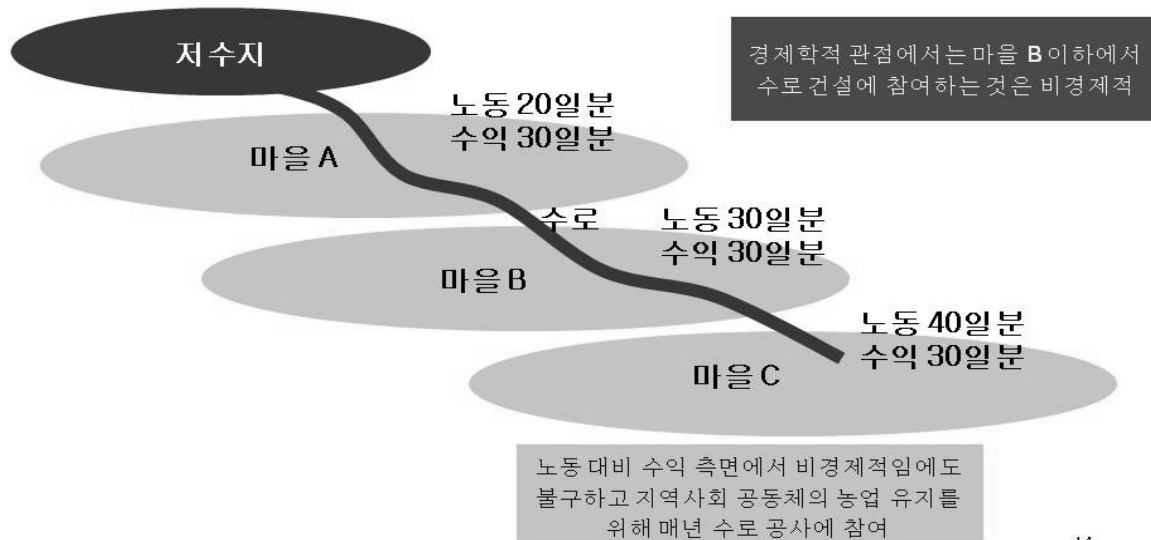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 협동조합 제도적 기원



개인 명품생산, 행정구역 대기업 유치, 유명 협동조합 설립이 아닌 인간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 지역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는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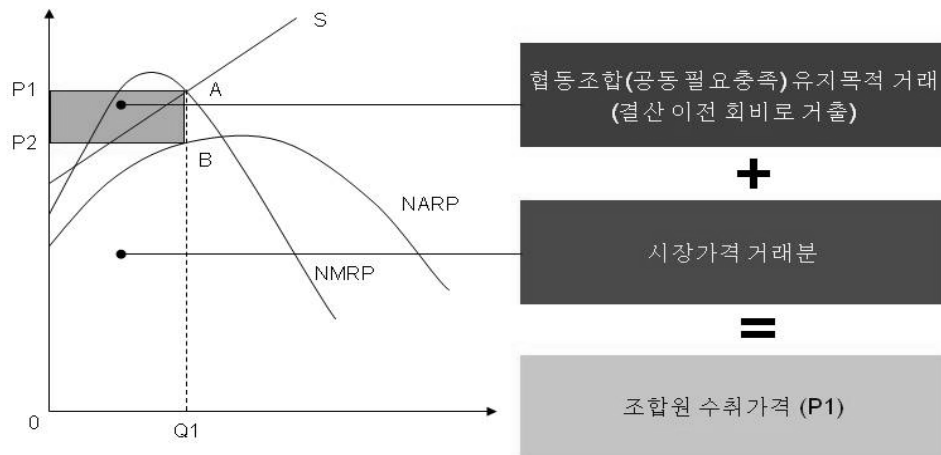
13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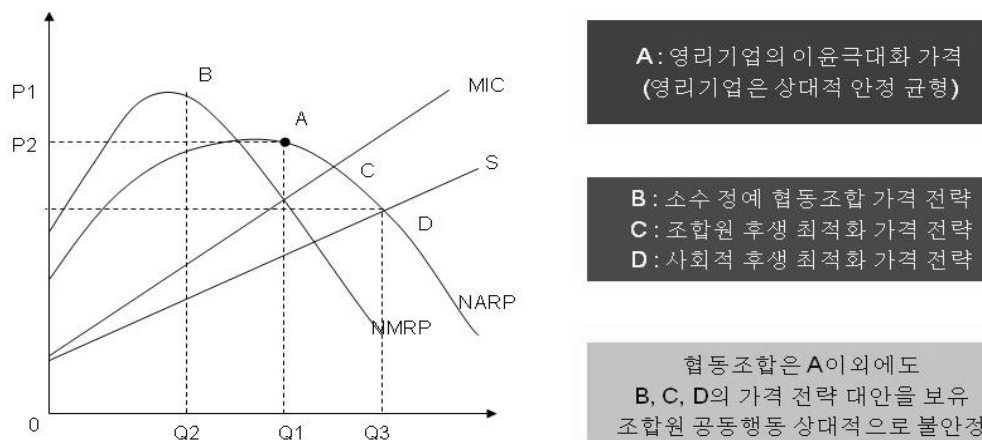
14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 부재시장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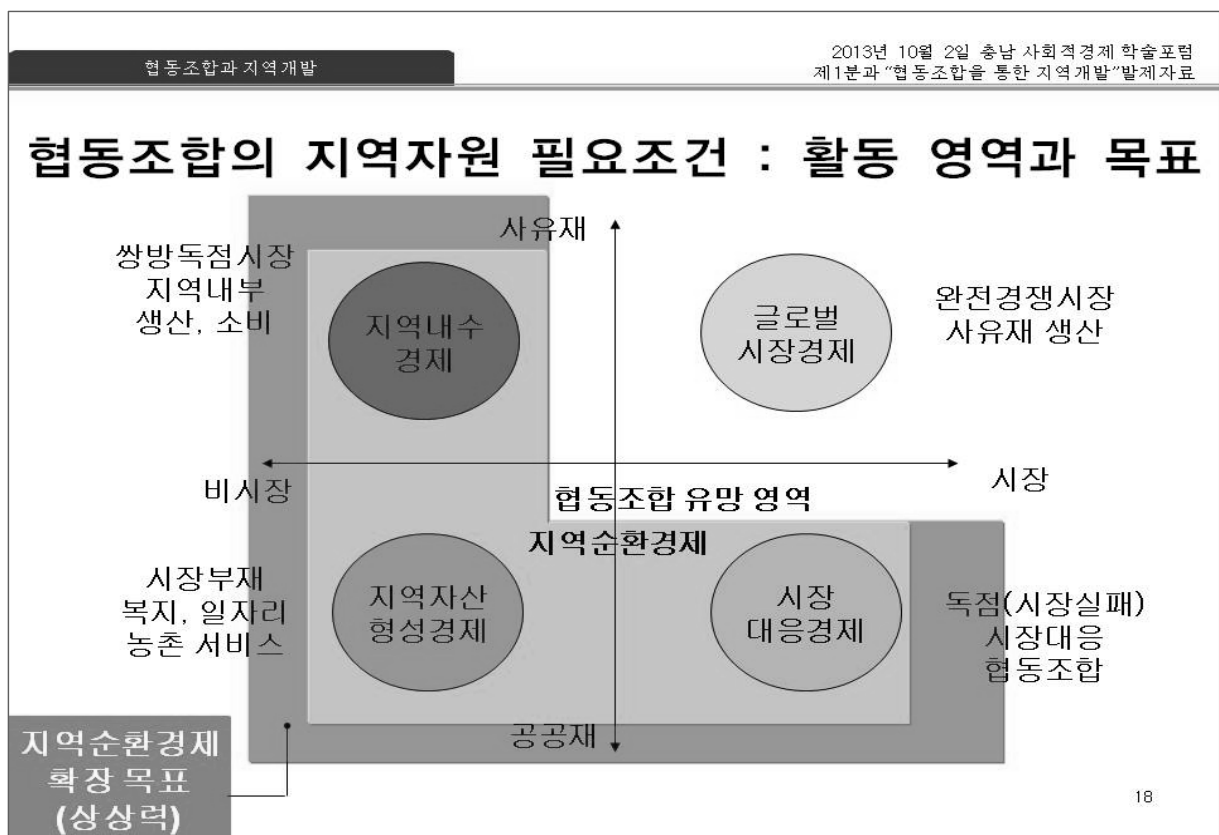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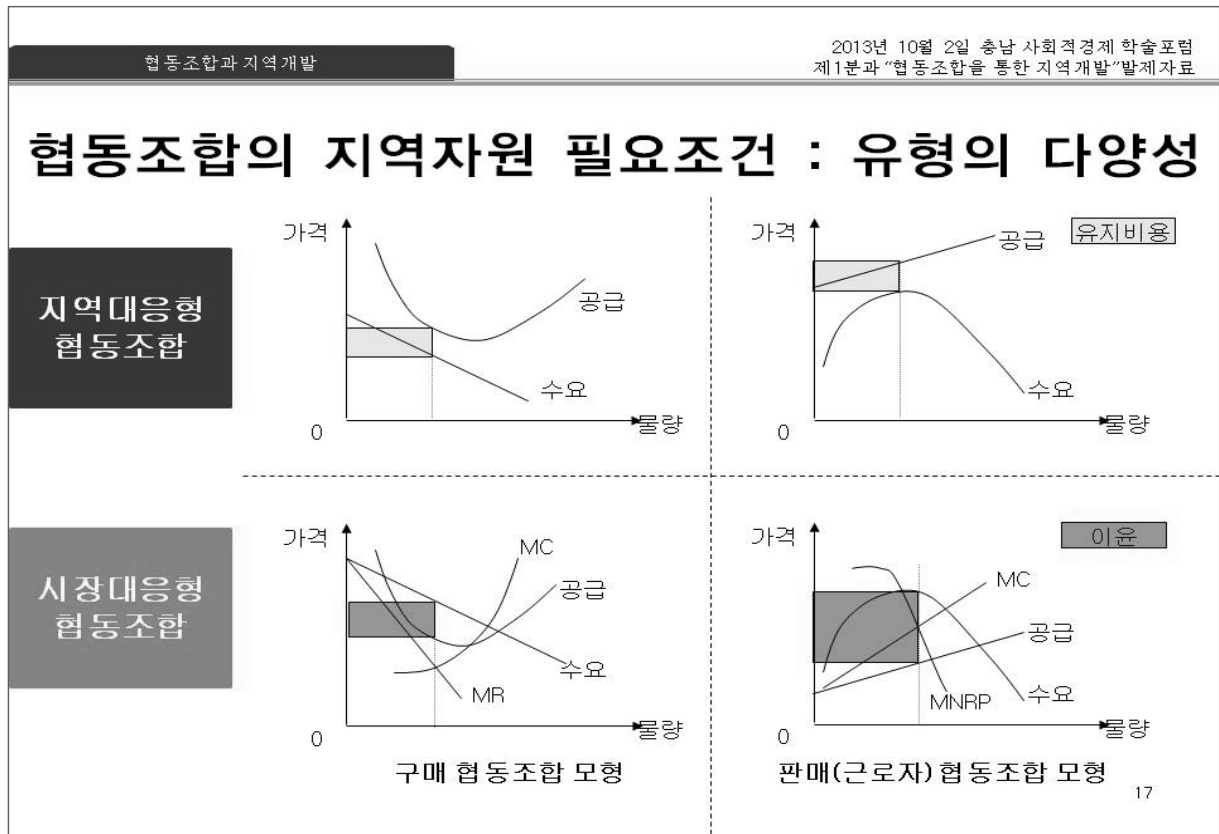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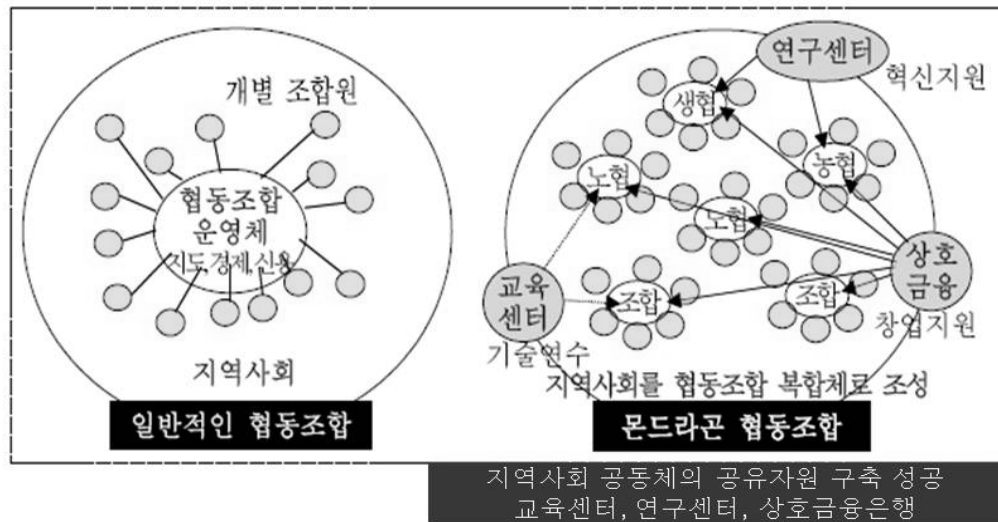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지역자원 필요조건 : 불안정한 균형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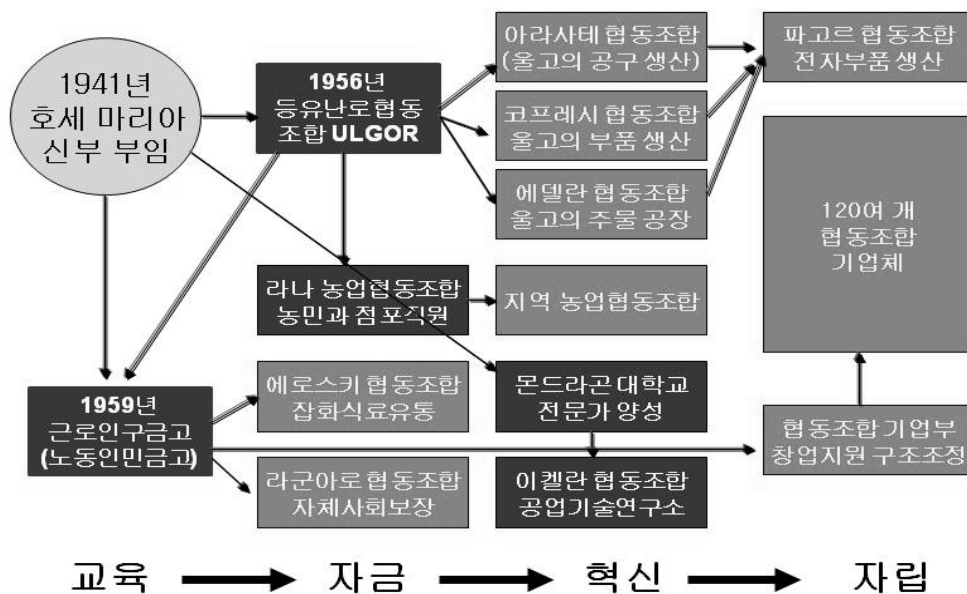


협동경제 지역자원 구축 성공사례 : 몬드라곤



19

몬드라곤 조직모형 특징 : 협동조합 단독 기업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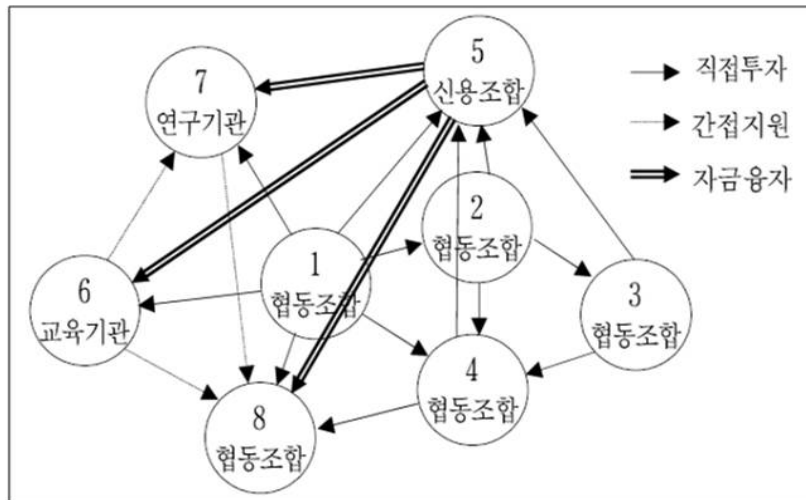
20

몬드라곤 시스템 구축방법 : 순차적 상호지분투자

순차적 지분투자
동종 회사군 형성

자원(교육, 연구,
금융) 관련 협동조합
공동투자

소속 협동조합간
직접, 간접 투자
자금유자 활용
내재적, 외부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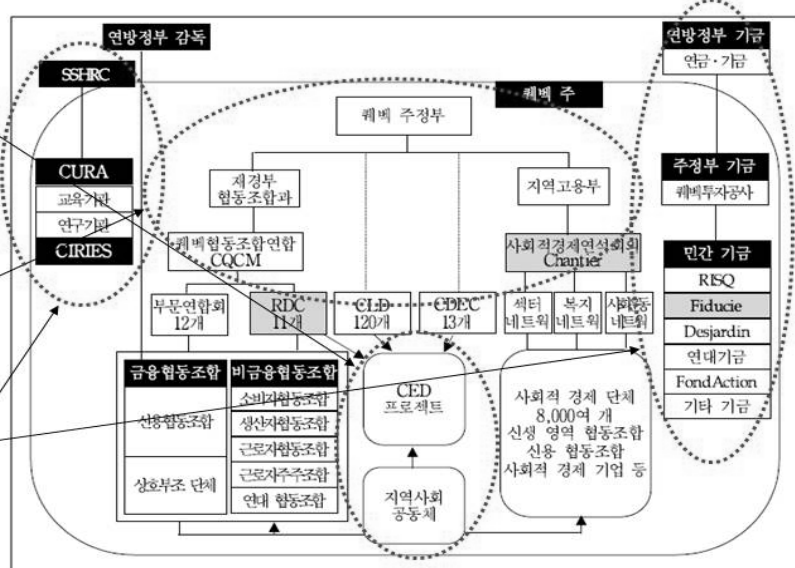
21

퀘벡 조직모형 특징 : 정책 거버넌스형 조직구조

조직 : 거버넌스형
정부, 기성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각자 목표
실현 공동정책 추진조직

제도
현장의 민관합동조직은 사
업 단일화, 정부는 법제 정
비, 민간전영은 내부 정비

자원
경영역량, 연구지원 체계,
정부 자금, 투자공사 설치,
민간 회계제도, 인내자금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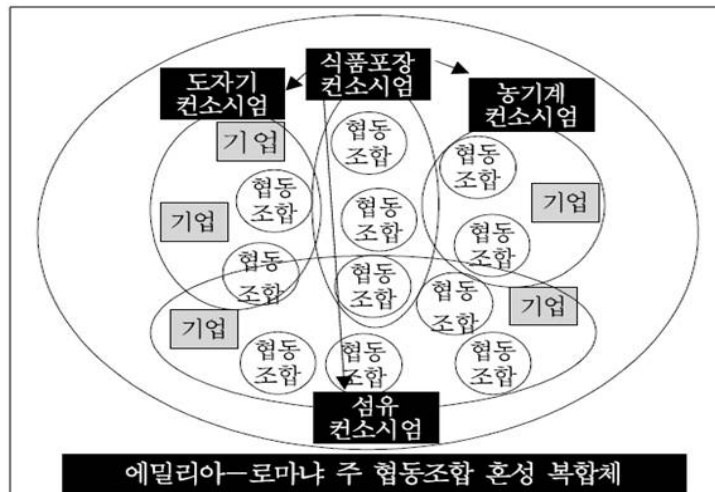
22

이탈리아 조직모형 특징 : 기업혼성 컨소시엄 구조

협동조합 관련 제도
유리

지역 내 기업들이
협동조합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

우호적 제도 활용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
경제활동 조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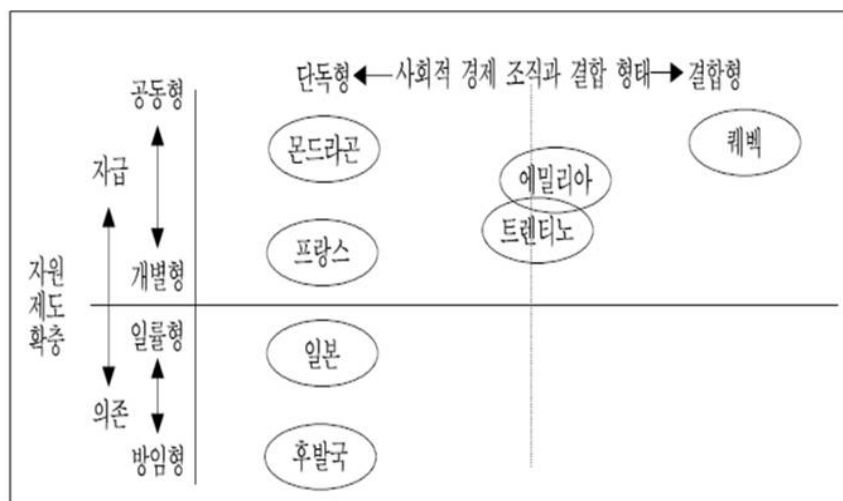
23

주요 국가 협동조합시스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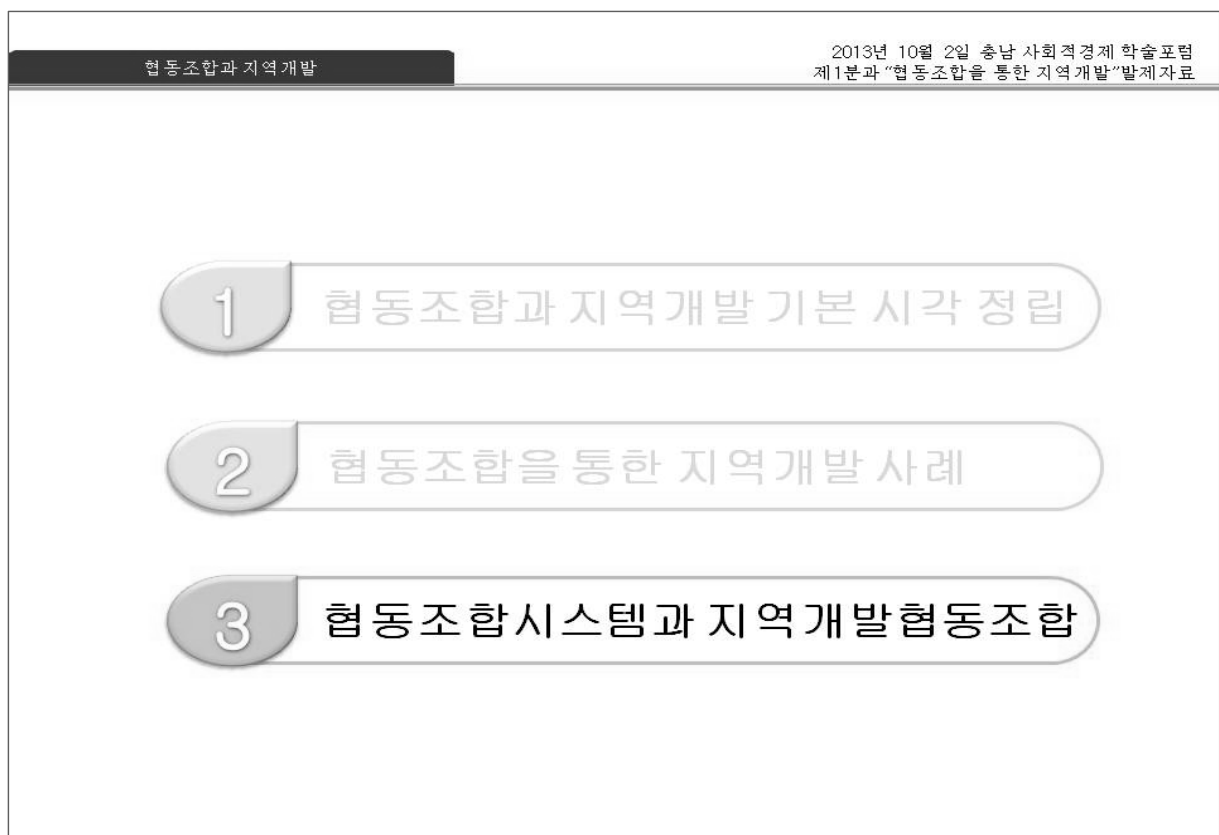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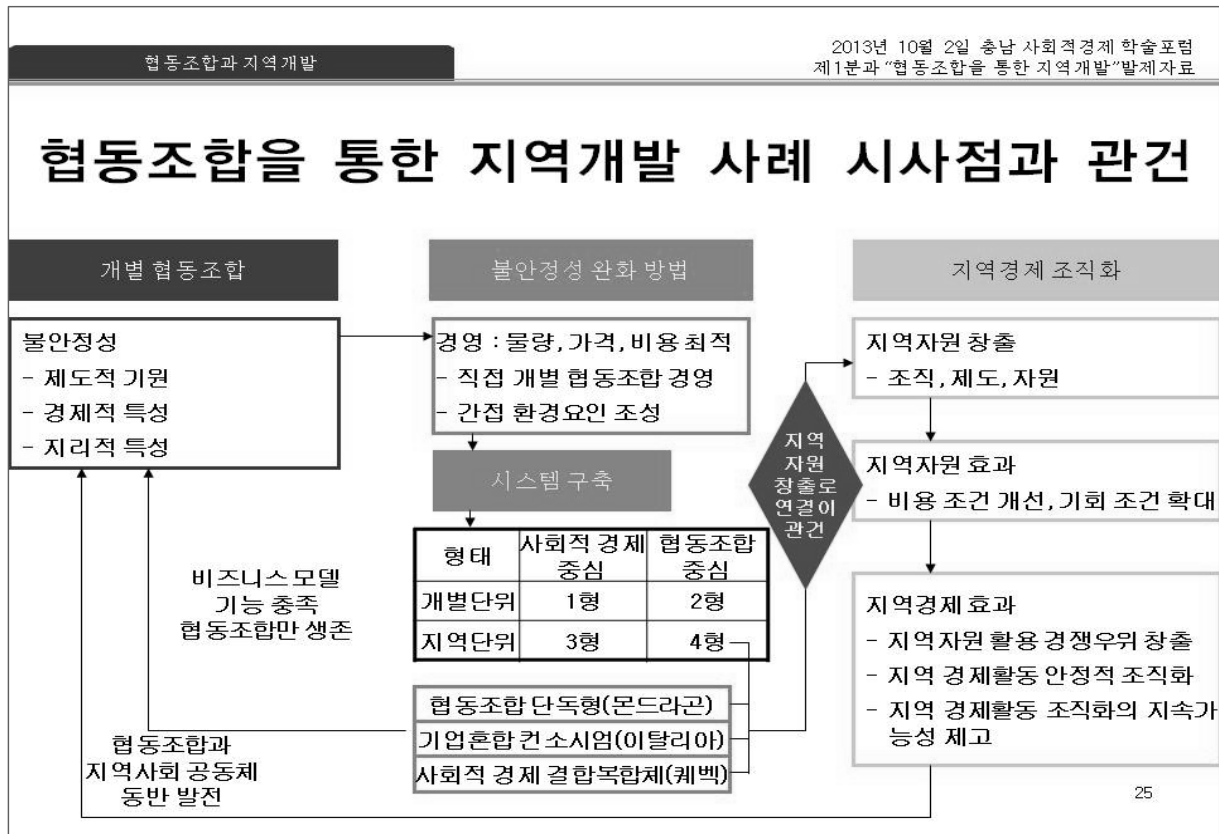
조직
단독형,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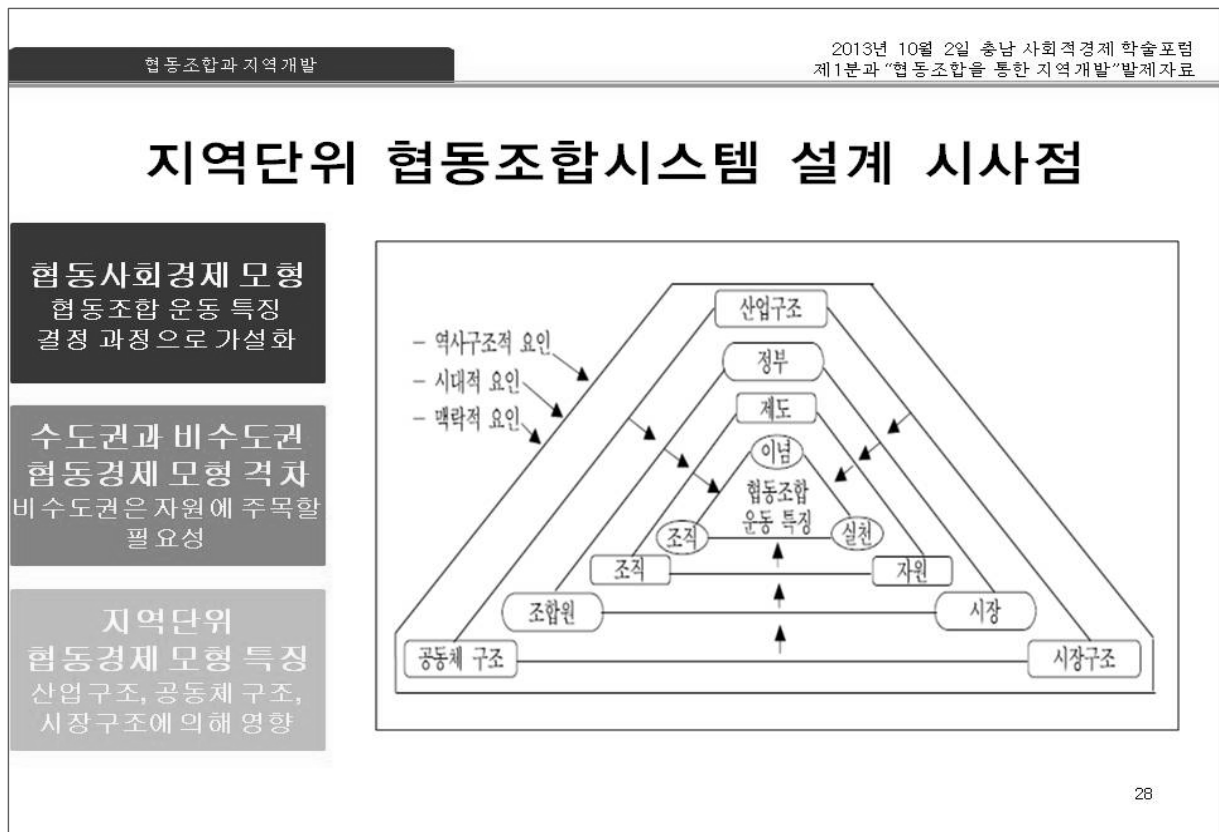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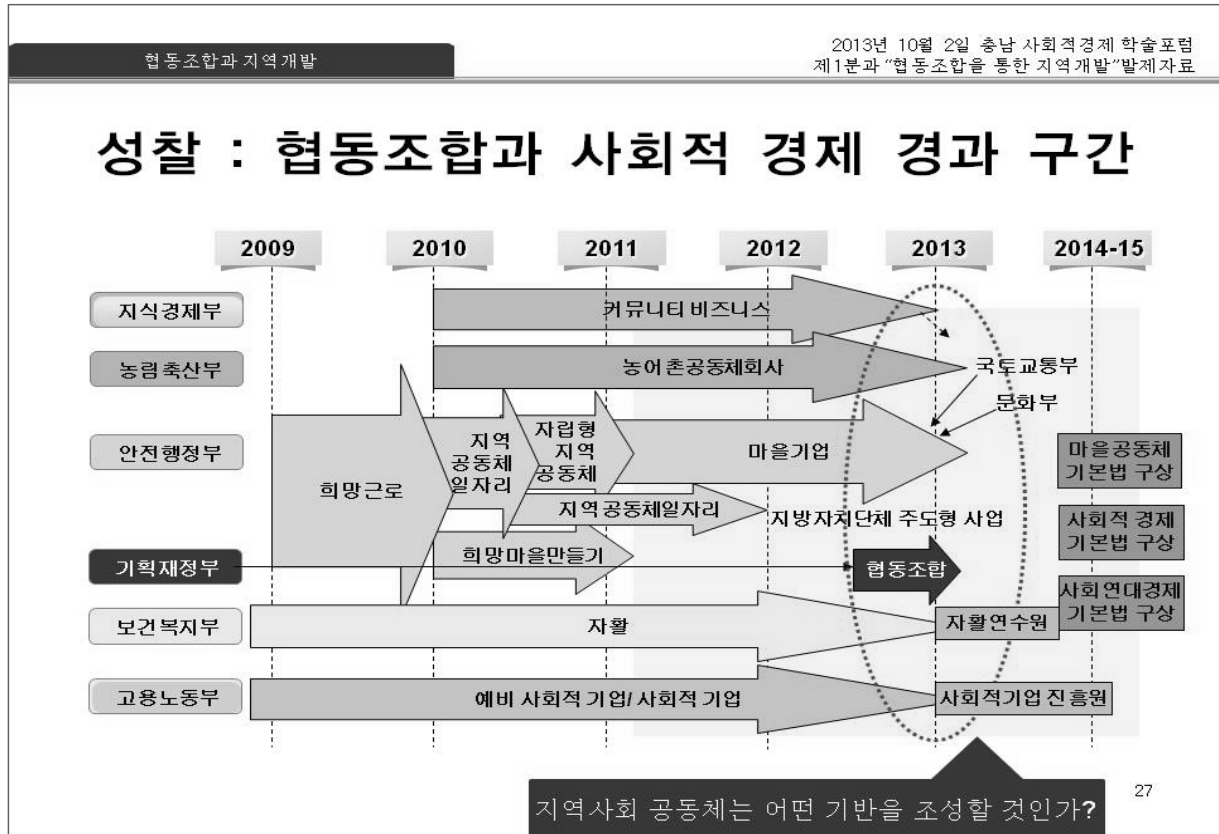
제도
민간주도, 정부주도

자원
자금형, 의존형
공동형, 개별형
일률형, 방임형



24





퀘벡 시스템의 불안정성 완화, 지역발전 기여 요소

지역자원 활용 경쟁우위 창출

1. 다양한 조직이 현장에서는 사업을 단일화하여 추진
2. 투입재원이 개인자산이 아닌 지역자산으로 형성
3. 경제활동조직화비용인하, 기회확대로 경쟁우위 형성

지역내 경제활동 안정적 조직화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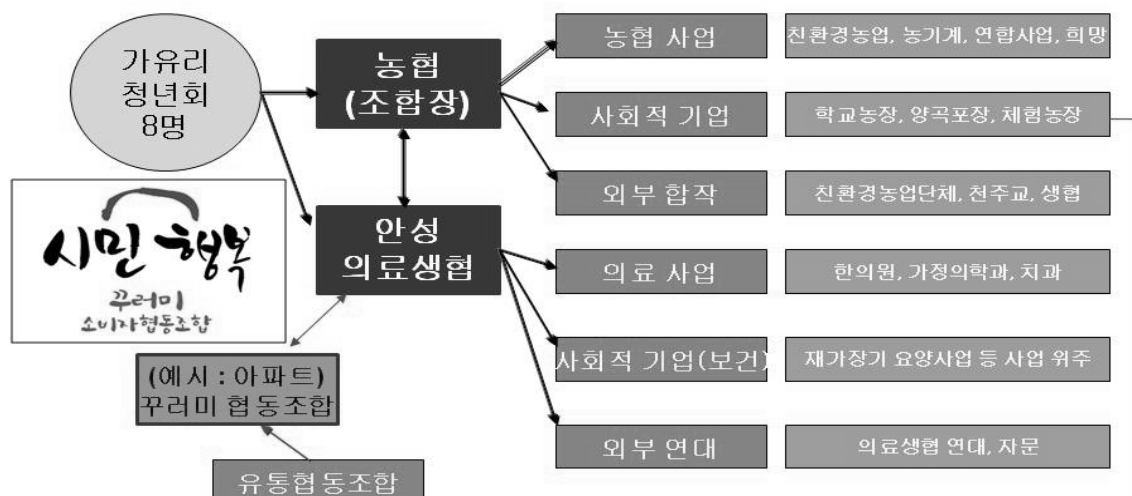
1. 기성협동조합 조직개편 : 지역개발협동조합 신설
2. 지역개발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현장 결합
3.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2원적 경제활동 조직화 수행

협동조합 불안정성 완화 시스템

1. 기성협동조합 조직은 자신들 내부에서 조직 동질화
2. 신생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신들 내부에서 조직 동질화
3. 정부는 양측 계획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하는 협약이행

29

국내 기성협동조합 우수사례 : 경기 안성 고삼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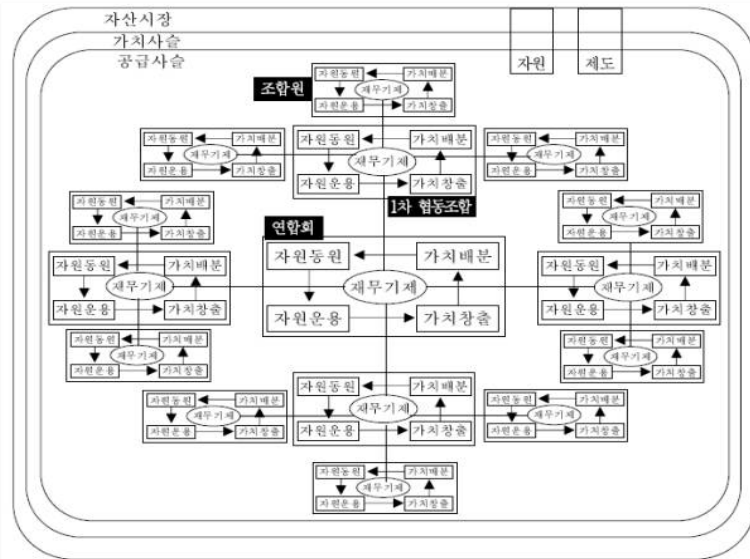
30

국내 도전 사례 : 전북지역개발 협동조합 모형

조직
10개 협동조합
재무기제 연결
(몬드라곤 모형)

제도
민간, 지자체
거버넌스형 시스템
(퀘벡 모형)

자원
5개 정의: 경영, 자금, 연구,
정보, 혁신
(케이프브레튼 사례)



31

재무기제가 서로 연결될 때 경제활동 조직화의 효과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자원을 창출

감사합니다.



토론

1

충남 지역개발협동조합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 종 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충남 지역개발협동조합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종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왜 필요한가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기는 힘들고 다시 모이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고 있고 좀 역설적으로 현재 살기 팍팍하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대로 살아보아도 경제 성장을 아무리 강조하고 GDP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마을 개념의 해체로 인해 더 이상 내부 순환적인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마을에서의 한 개인의 소득은 일정부분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얻어진 소득은 다시 마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재분배효과 내지는 순환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창출된 부가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구조로 변하고 있다(임경수, 2010; 김종수 외, 2012 재인용).

지역공동체 경제의 핵심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급자족적 지역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외부와의 교역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소비욕구가 국내외의 대자본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 진정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체제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체제는 지역 내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자원의 활용을 최대한 유도하며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경제의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란,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경제체제 아래에서 국가의 부가 소수의 자본가나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산적 경제체제를 통하여 경제력이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곧, 경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이가옥, 고철기, 2001).

이제 우리는 자급의 삶이 가능하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자급의 삶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결국 자급의 삶이란 공동체의 필요

를 외부자원 동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순환경제, 내발적발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도민들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책적으로도 바뀌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정책융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생활을 통해 이러한 개념(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전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삶은 ○○이다 라고 주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논의한 지역개발협동조합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 살고 싶은 삶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적자립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2. 어떻게 가능한가?

1) 자산기반의 정책으로의 전환

전문가 기반의 Top-down형태의 정부의 대응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지역의 필요들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지역의 요구들 간의 차이로 나타났고, 정부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탑다운 방식과 필요기반 방식의 절차들은 다양한 불평을 야기하였고, 주민과 정부 간의 불신은 보조금등 지원금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지역공동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기 위해 힘을 썼다(UN-HABITAT,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대안적 접근방식이 자산기반의(Asset-based) 접근방식이다. 전형적인 필요기반의 소요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자산기반의 접근은 정량적인 소요량을 찾지 않는다. 대신에, 전문적인 영역을 초월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변화에 호의적인 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디자인 과정은 “작업 환경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다루어지는 것보다 창조, 관리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일수록 더 낫다.”라는 기반위에 있다(Sanoff, 2000).

자산기반의 접근방법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 공동체에 이용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을 정의하고 자본화하는 방안을 찾는다(Kretzmann and McKnight, 1993;

Sanoff, 2000; Green and Haines, 2002; Mathie and Cunningham, 2003; Arefi, 2004 a;2004 b). 이는 정책입안자들과 지역 활동가들에게 공동체자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주택과 복지 등)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생동감 있는 공동체는 지역에 거주하고, 속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촉진시킨다. 그리고 희망이 없고 절감감에 빠진 주민들과 정부정책과 열악한 시장 환경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한다(UN-HABITAT,2008).

필요기반의 정책과 자산기반의 정책은 대상이 사람이나 공간이냐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 한다. 필요기반의 정책은 주로 자원의 배분이나 도심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산기반의 정책은 권한이양이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필요기반의 재분배나 도심활성화 정책은 빈곤계층의 수를 줄이고, 슬럼화 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노력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한다.

〈표 1〉 필요 vs 자산기반의 공공정책 옵션들

	People	Place
Need (TARGETING)	재분배 · 복지주의 · 수혜권(세금, 구호품, 주택 바우처, Food Stamps 등)	활성화 · 공공주택공급 · 근린단지조성 · 관(官)주도 도시재생 및 도심 활성화 ·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Asset (CAPACITY BUILDING/ ASSET BUILDING)	권한이양(Empowerment) · 사회적 자본 활성화 (networking, trust, reciprocity) · 공동생산과 지식과 기술 네트워킹 (전문가 지식과 지역지식 소통) · 자원에 대한 사회·정치·심리적 가치평가	파트너십(Partnership) · 역사적 보호와 장소에 대한 감성 · 자산으로서의 영토성 · 지역-대학, 공-사 파트너십 · 지역개발조합(CDCs)등에 의한 자발 적 재생

자료 : UN-HABITAT. (2008)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해오던 필요기반의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어쩌면 지금까지 국가가 해오던 필요기반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의 보조자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

해서 정책목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산기반의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도우며,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정치적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내도록 만들어야 하며, 공동체차원에서는 역사적 자산에 대한 가치인식과 자산으로서의 영토공유, 지역과 대학, 공과 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생과 가치의 선순환을 목표로 삼는 자발적인 지역개발조직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2) 네트워크 형성을 고민하자

Bates(1997)는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외부 자원이나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확보라고 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자원동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구축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가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과 그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이 남의 도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여 사업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

실제 충남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 전반을 파악하는 단위가 있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어야 한다. 이걸 단순히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면대면 관계가 중요하다. 얼굴있는 먹거리를 그리 강조하면서 왜 조직 간에는 자꾸 만나지 않으려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충남에서는 활동가 연구자가 만나 책을 읽고 수다를 떠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만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누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자기 것을 지도에 표현해보는 맵핑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싶다. 각 조직들이 어떠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면 모자란 것은 채워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풍요로워 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깔데기가 필요하다. 나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해야 한다. 그래야 안다. 지역에서든 마찬가지로이다. 지역에 숨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자원조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점들이 충남지역개발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이유일 것이다.

3)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자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사람(human capital), 인간관계(social capital), 자금(financial capital), 그리고 자연환경(ecological capital)등의 기존자산을 기반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투입되는 외부자원과 결합하여 네트워크화 되고, 이러한 과도기적 결과는 다시 사람, 인간관계, 자금, 그리고 자연환경의 순환적 재투자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의 자원으로 재투자되고,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는 상호 교류적이어야 하며, 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네 가지 자본에 대한 투자와 재투자를 활성화해야 도시 재생사업의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선순환체계의 형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단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수익창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자원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수 외, 2012).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사회적경제의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황무지에 버려진 듯 아주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것이고 지역공동체에 배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동원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전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끼리 연대하고 지지고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주류에서 떠다니는 자원들을 물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판이 커진다. 이때 가장 경계할 부분은 누구를 가르치려는 태도이다.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왜 너네는 그정도 밖에 안되. 어디서 이 바닥에서 사기를 치려고 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경제

초심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난 이 바닥에 선수다라며 선민의식을 가지려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태도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잘 모르지만 도와주고 싶은 맘이 들게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어야 한다. 그게 연대의 시작이다.

〈표 2〉 지역자산의 유형과 내용

종류	내용	사례
Financial	경제적 역할을 하는 금융자산	지역통화, 지역상점내 지분들, 공동체토지신탁, 지역재단, 신용조합,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 'Credits' 등
Built	삶에 필요한 건물, 시설 등의 고정자산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공동체소유의 shop, 광대역통신망, 공동작업공간 등
Social	사회적 자산 (상호이익, 신뢰, 유대)	지역 내 클럽, 여성, 농민단체 등의 조직들, 상호협력능력, 마을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
Human	인적자산 (건강, 지식, 기술, 동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공유. 지역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 문화인, 학자, 위원회 구성원 등
Natural	자연자산 (가공할 수 있는 물질,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포함)	이 자산들은 특히 지역적 맥락에서 중요함. 저수지, 숲, 석탄, 물고기, 바람, 바이오매스, 목초지와 농장.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와 같은 자연, 목초지, 해변가, 그린벨트, 저지대평야, 초원과 목장, 과수원, 고원, 수변지역 등
Cultural	문화자산 (지역의 세계관, 가치관, 사상 등을 형상화 하는 것)	중요한 지역행사, 다양한 축제, 지역고유의 언어 등
Political	정치자산 (한정된 자원의 분배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의 역량)	해당지역 또는 지역의회, 개발신탁, 지역 전략 파트너십 등

그래서 현재 충남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노조와의 연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활용이다. 노조와의 연대는 정말로 중요한 거 같다. 어차피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삶에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 아닌가. 노조도 뭐 그러한 것일 것이다. 노동자끼리 연대하고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노동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연결이 매우 쉬울 것 같은데 우리와는 다른 흐름이라며 무언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외에도 농협, 신협 등 기존

협동조합에의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자꾸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본래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이 셋 이상 모이면 그 중에서 다른 이를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현재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대부분 CSR이 눈가리고 아웅일 경우도 많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다.

고민은 이 이점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그냥 알아서 조금 기부하고 지역에서 적당히 활동하도록 놔둘 것인가? 그걸 모아내면 엄청난 자원일 거 같은데 이 영역은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동동거리고 고사당하고 있는데? 원칙과 자존심을 지켜야겠지 만 그래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숨통은 튀어야 할 것 아닌가.

개인이 자본과 권력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있다면 가능한 한 모두 모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 이 영역에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모아 충남기업 사회공헌 포럼을 만들고자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은 부디 잘 운영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 몇억 몇십억씩 쏟아져 사람이 분열되고 스스로 깨어지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무엇보다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기금과 교육이다. 이것이 지역개발협동조합의 핵심적인 기능이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형성은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일에는 돈이 꼭 필요하기도 하다. 물론 이 영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은 오히려 무진장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함정은 그 돈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일자리를 목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인내자본이 없다. 이 영역 조차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아웃이다. 그런데 무슨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이 쏟아지겠는가. 그러면서 무슨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는가. 관에서 그런 돈이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만큼만 관이든 기업이든 매칭을 기획하면 된다.

관련하여 아주 소액이라도 모을 수 있는 공동계좌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공동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통해 나오는 돈들을 조합원(혹은 회원)들이 일정 기준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지만 민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웠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것인가 하는 피로감이 쌓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스스로 이러한 자산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자립과 자급의 길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은 어차피 '법적으로' 이윤의 70%는 사회공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선은 이 영역을 확장하는데 힘을 모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연대회의를 꿈꾸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해야 한다. 국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스스로 자기 것을 내어놓는데 인색하다면 그것이 무슨 사회적경제 조직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는 필요에 기반하여 시작된다. 실제로 청소용역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다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이는 소규모업체로는 도무지 시장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현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결정 후 자기 자산을 모아 공동교육장, 네트워크 공간 등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니 정책적으로도 채택하여 많은 자금이 투입된바 있다. 또한 즐거운밥상에서는 우수사회적기업 정책자금과 스스로의 자금을 내어놓아 사회적경제를 알려내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모두 감동적인 과정이다. 이제 개별 사업체의 생존을 사회적경제의 큰 틀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사례로 그치지 않고 충남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금은 돈만 모은다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말 그대로 십시일반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 돈으로 우리가 스스로 후속세대를 키우고 스스로 어려움을 보듬어보자. 그게 자립과 자조의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이다. 지역 내에서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이 후속세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는지. 어차피 없다고 포기한 것은 아닌지 다시 반문해본다. 예를 들어 충남 서천에 대학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던지 참 어려운 일에 봉착하기 쉽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대학을 만들 수 없다면 시민 스스로 잘하는 것을 발굴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부야 대학²⁾'과 같은 시스템을 꿈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마포 등에서 시도되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은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해보자.

충남지역개발협동조합의 운영과 자원동원을 위해서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시민대학, 평생교육 이러한 키워드를 잘 엮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캠프를 시도하였다. 이 청년캠프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꾸 만들어 내볼까 한다. 이들을 엮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지역의 활동가로 남게 함으로써 지역순환의 첫 단추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시부야대학에서는 누구나가 학생 또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콘셉트로 시부야 지역의 사람, 공간,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연결해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시부야 대학은 마을 전체가 캠퍼스라고 가정하므로 카페, 레스토랑, 백화점 등 시부야의 모든 공간이 교실이 되고 캠퍼스가 된다. 강의를 하는 교수도 전문 강사나 교수가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고 직접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부야 대학은 2006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700개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김종수 · 전은호 · 홍성효(2012). “공동체자산기반 접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방향 모색”. 『도시행정학보』. 25(2): 71-91
- 이가옥, 고철기(2001).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녹색평론사
- 임경수. (2010)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http://www.heri.kr/files/board.9/2227_1253526066.pdf)
- 최조순 · 김태영 · 김종수(2011).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도시행정학보』 24(1): 238-302
- Arefi, Mahyar. (2003) “Revisiting the 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 (LANI):Lessons for Planner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2 (4), 384-399.
- Bates, T. (1997). "Financing Small Business Creation : the Case of Chinese and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2(2).
- Green, P.G. and Haynes, A. (2002) *Asset Build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retzmann, J. P. and McKnight, J.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Center for Urban Affairs and Policy Research, Neighborhood
- Mathie, A. and Cunningham, G. (2003) “From Clients to Citizens: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Development in Practice* 13 (5): 474-486.
- Sanoff, H.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UN-HABITAT. (2008) “An Asset-based Approach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2008*

토론

2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꿈과 도전

이 현 민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꿈과 도전

이현민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 가장 깊숙이 매몰되어있는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보수/진보를 아울러 고용과 복지 문제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추진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바탕 위에서 이의 극복방안이 모색되기 보다는 ‘갈아타기’ 차원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전일화된 재벌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 보장되었다는 엄청난 사실은 향후 한국 경제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합니다. 자본의 규모와 수익률에 의존하는 주식회사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과 호혜에 근거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이 구축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조합원의 신뢰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간 협동과 협력에 의하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협동조합은 외부에 다양한 협의체, 연합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기회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이를 실천했던 경험도 일천합니다. ‘상호부조와 호혜’는 고작 책에서나 접하며 사상적으로 꿈꿔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책에서 서구의 협동조합은 사례로서, 때론 적용가능한 아이디어로 취사선택되고 있습니다. 복사(copy)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하나하나의 사례가 성패 여부를 떠나 그 시대, 해당 사회가 처한 조건 그리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그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이 함께 읽혀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겉데기만 베끼려면 안하니 만 못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념과 사상에 근거하여 합의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동업을 위한 사업적 결사체입니다. 구성원(조합원)의 공동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활동방식의 차이와 사소한 이견과 감정 때문에 갈라서거나, 사업의 결정과 진행이 터덕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효율성을 들먹거리는 순간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때론 지루한 논쟁과 반복되는 합의를 거치는 과정, 그 자체가 협동조합의 정신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어져 내려온 협동의 정신은 일제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동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유포로 왜곡되어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물려준 협동의 유산은 우리 핏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조선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IMF 위기에서 진행되었던 금모으기 운동 등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낡고 진부한 것이라 여기며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자주와 자치, 자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은 사업의 내용과 방식 등을 정관에서 명문화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도 총회를 통하여 제, 개정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욕심을 내어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규모화를 꾀하기 보다는 서로 마음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협동조합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현재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간을 연장해 왔던 셈입니다. 전 세계적인 실업 증가와 복지 정책의 후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도시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의 퀘벡과 같은 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가 묶여 있는 곳입니다.

UN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적인 안정 효과 및 사회 통합의 기능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소비자 생협 등 8개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제한하였던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협동조합기본법제정 연대회의’등의 입법 청원의 결과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제=자본, 돈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도 ‘자본 중심의 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람 중심의 경제’가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세계의 협동조합 도시들은 빈곤 퇴치, 고용 창출, 사회적 통합의 대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국내에 소개되었던 책 ‘몬드라곤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협동조합 경제는 이미 15%를 차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방영된 KBS스페셜 ‘스페인 몬드라곤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활동

2012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육성, 지원 정책의 구상 등이 조심스럽게 회자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육성, 지원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임에도, 이전의 사회적기업, 마을 만들기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려가 교차합니다.

200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촌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업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마을에 축적되기보다는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추진하다보니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거나,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농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은 약 660여개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참여자의 인건비 지원에서 현재 엄격한 재정 자립이 요구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 숫자에 매달린 육성정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안정적인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는지,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이 과연 좋아졌는지 반문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창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 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의 높은 문턱을 뛰어 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가능한 조건의 마련과 활동의 축적에 충실하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결과물을 내오는데 급급해하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사회적경제를 고민하고 실천하여 왔던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 만들기, 소비자 생협, 농민단체 등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관련 움직임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잡혀가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와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데 실체는 없습니다. 유행처럼 설립을 권장하고,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듯 회자됩니다. 실패한 정부 정책의 갈아타기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환상이 아닙니다. 경제적 결사체라는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조직하고, 사업의 전망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주, 자치, 자조의 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사회적 생태계의 조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함께 조성하여갈 때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 경제의 한 형태이면서 反자본주의 이기도 합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이 필요한 근거입니다.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협동조합 사업을 통하여 직접 개발하여 공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스페인 몬드라

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지향하며, 캐나다 퀘벡州 협동조합연합회(CQCM)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회사, 농촌마을 사업단, 농어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업자조직 등으로, 조사 결과 도내 약 4,000개의 사회적경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은 평균 1억2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으로 1조 9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 때 지금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국밥처럼 활동하였던 사회적경제의 사업을 하나로 묶을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은 어느 한 영역과 부문만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관, 지역-부문, 다양한 영역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건강한 협동조합 활동가를 육성하는 교육사업과 조사, 연구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바로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門)입니다.

혼자서하는 협동은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여야 가능합니다.

지역과 협동조합이 만나야하는 이유입니다.

99% 국민을 위한 경제, 지역 협동조합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의 내용³⁾

지역개발협동조합(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은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협동조합 사업을 통하여 직접 개발하여 공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지향하며, 캐나다 퀘벡州 협동조합연합회(CQCM) 가입되어 있는 지역개발협동조합(CDR)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퀘벡의 협동조합 조직체계는 기성 협동조합의 연합회 계통조직과 신생 협동조합의 연합회 계통조직으로 구별됩니다. 퀘벡 협동조합연합회(CQCM)는 기성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계통조직이며,

3) ‘더불어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5월 이사회 내부워크숍 자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산하에 부문별(sector)연합회와 지역별(regional)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별 연합회는 11개의 지역개발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은 5가지 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재무적인 결합 (Formation)
- 2)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공동자산 운용 (Finance)
- 3)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공동 연구 (Research)
- 4)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공동 정보 (Information)
- 5)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신기술, 혁신 (Innovation)

1. 재무적인 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경영 혁신 : 집체적 경영 전략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은 1980년대 이후 시장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1986년에는 스페인이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한 경영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은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경영구조를 혁신하며 강력한 통합 경영 복합체 구조를 갖추고 세계화 추세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그 결과, 2013년 4월 현재 스페인 전체 실업률이 27%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몬드라곤 지역의 실업률은 10%대로 지역사회의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의 집체적 경영 역량 혁신 과정은 1986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86년까지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은 까야 라보랄(Caja Laboral) 은행이 채권채무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협동조합들을 단일 구조 안에 결합시키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역 협동조합들의 시장성고가 악화되고 1986년 유럽단일시장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동 시장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 의결기구 설치를 결의하였다. 그 최고 의결기구로 1986년 지역 협동조합들의 단체총회(Congress)를 발족했고, 1987년에는 협동조합들의 제휴 정도가 더 상향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GCM)을 발족했으며, 1991년에는 아직 재무적으로는 완전하게 결합되지 않았지만 명목상으로는 단일 회사법인으로 결합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법인(MCC)을 발족했다. 그 후 1992년부터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은 단일 회사법인 형태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며 지역단위 협동조합 복합체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었다. 비록 명목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회사법인 형태를 갖추에 따라 1986년 이후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을 1992년부터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지역의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인 재무적 결합체인 '몬드라곤' 통합 대표법인을 가동함으로써 지역단위 250개 협동조합 복합체가 지주회사 형태로 경영을 혁신한 획기적인 사례를 보이게 되었다.

2. 공동자산 운용

캐나다 노바 스코샤 주 케이프 브레튼 지역 공동 금융자원 확충 사례

캐나다 노바 스코샤 주 케이프 브레튼 지역은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을 활성화하기 공동 금융자원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조직 형태를 창출하며 조성했다. 그 조직들은 1973년 발족한 뉴돈 기업, 1990년 발족한 BCA 지역사회 공동체 자산운용회사이다.

뉴돈(New Dawn) 기업 그룹은 캐나다 노바 스코샤 주 케이프 브레튼 대학 그레그 맥레오드 신부가 1973년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비영리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업 집단을 가리킨다. 케이프 브레튼 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의 협동조합, 신용조합, 노동과 노인 관련 주민 단체 및 사업체 등 여러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에는 신용조합의 사업용도 대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973년 이사회를 구성한 후 이사들이 연대보증하여 은행에서 2만 달러를 차입했다. 이를 토대로 폐건물을 매입하여 상가 임대사업과 소득 중하층 주민용 주택, 노인보호시설, 치과 등 편의시설 유치사업을 하였으며, 불어난 자본금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사업을 벌였다. 1990년에는 폐쇄 결정된 레이더 군사기지를 매입하여 병영의 막사를 주거공간으로 개량한 후 돌봄대상 노인과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이 마주 거주할 수 있는 노인 가정돌봄사업 공간을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 형태를 선보였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자립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뉴돈 지주회사(New Dawn Holdings)를 설립하여, 자금을 모집한 후 뉴돈 자회사들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을 펼치고 있다(그레그 맥레오드 저· 이인우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pp. 207-209; 뉴돈 지주회사 홈페이지 <http://www.newdawnholdings.ca> 참조).

한편, BCA 지주회사(Banking Community Assets Holdings: 직역 ‘지역사회 공동체 자산은행 지주회사’)는 역시 그레그 맥레오드 신부가 케이프 브레튼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0년대 중반 설립을 지원한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자산운용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앞의 뉴돈 기업 그룹이 모회사로 설립되었다. 당시 모회사인 뉴돈 기업 그룹은 지역사회에 신규 투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자금계정(capital pool)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그 후 5년여의 구상 끝에 1990년 지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리 5% 조건의 50만 달러 자금을 조성하고, 연방개발대행공사로부터 50만 달러의 무이자 융자를 받아 100만 달러의 자본을 마련함으로써 모회사로부터 독립하였다. 다시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2년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지역에 건물을 신축한 후 상가를 조성하고 점포임대사업을 벌여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켰으며, 밧줄 제조 회사, 배관 및 난방 사업체, 호텔, 라디오 방송국 등 파산 이후 지역 외부에 매각될 운명에 놓였던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사업체들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역시 현재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그레그 맥레오드 저· 이인우 옮김,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pp. 228-232 참조).

3. 공동연구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창업 전문 제휴사업단 Saiolan 창업 지원 과정 운영 사례

1. 진흥 활동(promotion) : 대학교를 방문하여 워크숍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사업체 창업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는 인력모집 캠페인에 가까운 것이다.
2. 유망 기업가 후보 선발 : 사이올란은 매년 기업가 보조금(entrepreneur bursaries) 응모자를 공모한다. 응모자들은 보통 공학 또는 경영학 분야의 대학 졸업 자격 보유자 수준이지만 작업 현장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1996년 300명의 응모자를 접수하여 12명을 선발했다. 학업 성적은 핵심 선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사이올란은 지원자의 상상력, 독창성, 유머감각에 주목한다.
3. 1 단계 : 처음 3개월 동안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현대사회 사업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배우는 기초 과정을 제공받는다.
4. 2 단계 : 학생들은 2명 정도의 팀으로 나누어져 다음 6개월 동안 선택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학생별로 개인 교사도 임명된다. 분야는 정보기술, 가구제조, 회계 서비스 등이다. 학생들은 해당 특정 분야의 최첨단 지식을 배우게 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학생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기획자(promoter)로 된다.
5. 3 단계 : 이 단계는 실습과정이며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시장조사, 기술계획, 재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작성과정을 실습한다.
6. 4 단계 : 이제부터는 기획자로서 소속 은행인 까야(Caja)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제안서를 엄격하게 분석한다. 까야가 최종적으로 동의하면 학생들은 저렴한 이자율로 사업계획 당 10만 달러까지 초기 대출을 받게 된다. 이들 기획자에게는 자신의 개인 보증 이외에 어떤 담보물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7. 검증 기간 : 사업자 배양 차원에서 2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연간 2-3개 창업을 목표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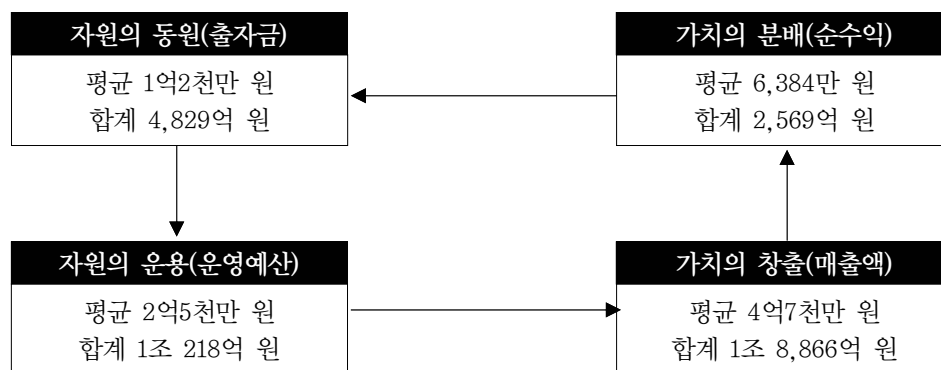
자료 : MacLeod(1997: 48-49).

4. 공통 정보

전라북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도내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마을회사, 향토산업 사업단, 농촌마을 사업단, 농어업생산자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업자조직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결과 도내 4,028개 사회적경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구조를 간이 현금흐름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 4,082개 단체는 평균 1억2천만 원 규모의 설립자본금을 동원하여 합계 4,829억 원 규모의 자원을 사회적경제 영역에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평균 2억5천만 원 규모의 자원을 운용하여 합계 1조 218억 원 규모의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은 평균 4억7천만 원, 합계 1조 8,866억 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하며, 최종적으로 순수익은 평균 6,384만 원, 합계 2,569억 원 규모를 분배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금흐름 구조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황성일(2012: 46; 47; 73; 74)을 토대로 작성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협동조합들의 자원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의 창출과 분배 목표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효과적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 신기술, 혁신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공동 혁신자원 확충 사례

몬드라곤에서 최초의 제조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설립자들은 신생 제조업체로서 기존 회사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지방에서 생산하지 않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로 했었다. 그 후 범위를 지역의 업종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제품 구성 논리를 유지한 가운데 두 명의 설립자들은 제조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 이태리와 독일에 갔다. 이들은 무(無)의 상태에서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기술을 의존하는 것은 간접비가 소요되었고 독자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가 많았다. 기술은 매일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도록 이끌었다. 첫째는 내부 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평생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구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 스쿨의 일부 강사들이 1974년 이켈란이라는 기술 센터를 처음 설립했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설립자들은 33년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춘 네트워크 조직 체계를 그림 2와 같이 만들었다. 몬드라곤 지역 협동조합들은 두 개의 기술 기관(대학 및 연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유치하여 일반적 연구 기능을 확충했으며, 이를 응용연구와 연결하여 혁신역량을 내부에 보유하게 되었다.

몬드라곤에서는 가입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사업부문 본부(Divisions)에 제안하고 사업부문 본부가 로컬 클러스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사업부문 본부들은 4년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가입 협동조합에게 기술 계획의 콘텐츠를 제안한다.

03

제 2 분 과

지역에 밀착한 협동조합 운영방안

제1발제 박승옥 (공주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대표)

제2발제 정민철 (홍성 젊은협업농장협동조합 이사)

제3발제 이원하 (공주 우리놀이협동조합 상무)

제 2 분 과

1

협동조합은 사업과 결사의 조합이 없으면 망한다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사례 -

박 승 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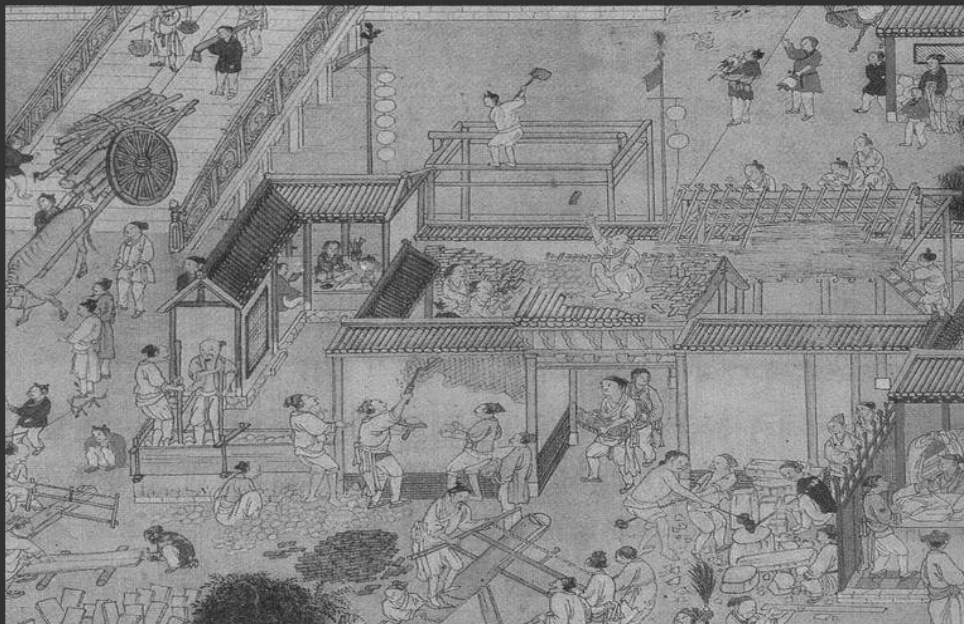


함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에너지 생태건축 협동조합 두레배움터



함건축 연구소 **살림**



한 노인이 죽으면
그건 한 서고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아프리카 격언중에서...



1997

집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나요?



« 손동작은 뇌의
작용에서만 움직이는것이
아니다. 감성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영혼의 철학이
있다면 그 손은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작업현장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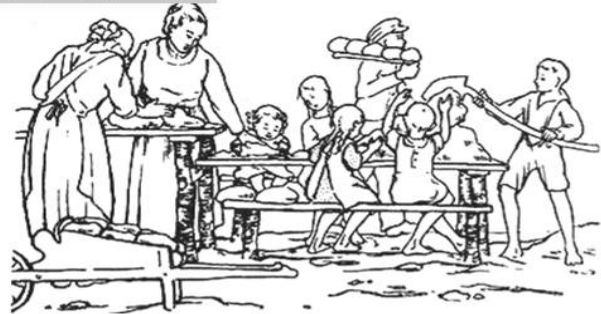
성가를 부르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근육들이
영혼의 순수함과 함께
같이 할것이다.

그 노래가 건물을
올라가게 할것이다. »
- 하산 파티

적정기술로서의 흙건축 - 인간의 체온(36.5)을 가진 기술

내가사는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작업하는

평화로운 집짓기 문화.

노동을 넘어 신명으로~~



바탕과 재료가 될 자연과
사람의 노동력이 만나 집이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 나고...

오래된 미래를 만들다...



-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재 에너지 (embeded energy) :

제조과정 중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총량
낮을수록 친환경적, 단위 kWh/m³

콘크리트 500 시멘트벽돌 1140
철 6,100 (산소 소모량 50 m³/t)
알루미늄 195,000 (산소 소모량 10000 m³/t)
흙 8

3. 흙건축 재료-흙의 물성



흙과 입도

흙과 물

섬유

결합재

4. 흙의 효과



주거 환경적 측면

지구 환경적 측면

4. 흙의 효과- 주거 환경적 측면



□ **생명공간을 만든다.**
성장률 55:-10%, 폐사율 0: 60%, 선회도 72: 28%

□ **습도조절 능력이 우수하다**
흡수량 3.08: 0.81g/cm² 방출량 2.33: 0.42g/cm²

□ **탈취율이 높다**
탈취율 98: 61%

□ **에너지 효율이 높다**
내재에너지, 난방에너지 절감, 프랑스전력회사 50%수준

□ **배출오염물질이 적다**



EARTH 공기질 연구

- 측정 대상
포름알데히드(HCHO)
- 측정 조건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방법 ($210 \mu\text{g}/\text{m}^3$ 기준)
(환경부, 2004)
- 측정 결과(기준 이하 공기질 변화 확인)
측정 전 $238.82 \mu\text{g}/\text{m}^3$, 측정 후 $79.40 \mu\text{g}/\text{m}^3$



흡의 효과- 지구 환경적 측면



지구환경적 측면

선진국은 2050년까지
시멘트 소비량의 80%,
알루미늄 85%만큼 줄여야 한다.

흡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Hugo Houben 인터뷰

- ★천연자원의 절약
- ★에너지 소비 최소화
- ★에너지 소비 효율화
- ★오염감소 - co2의 문제점

워크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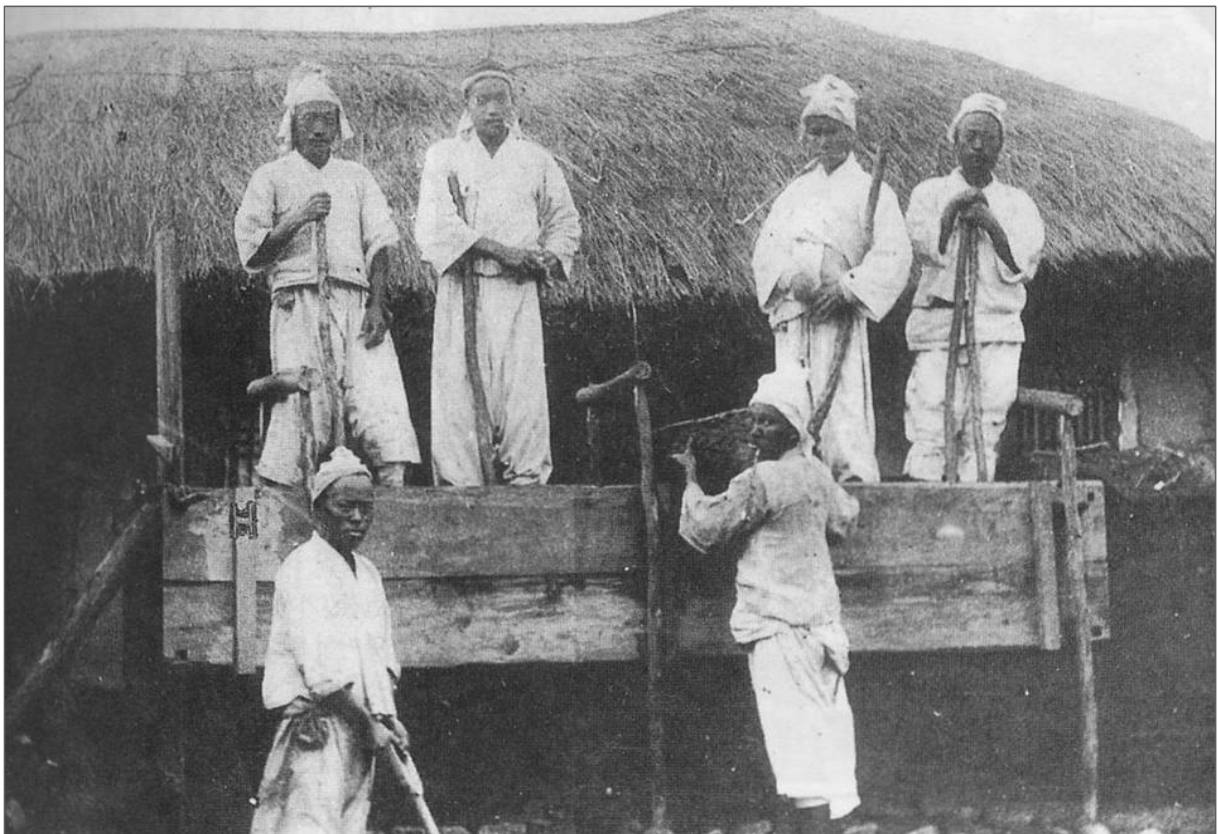
1. 2010 사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워크숍
2. 2012 자연재료를 이용한 헌집단열교육
3. 2012 예산 대흥 슬로우 시티 주민교육(1~6차)
4. 2012 아파트 황토방 만들기 교육(1~4차)

흙을 이용한 다양한 축조법

- 흙다짐 공법(rammed earth)



담집 혹은 담틀집이라 불리워왔던 전통적인 흙건축 방법으로 목재나 철재거푸집을 이용하여 틀을 세우고 거푸집 안에 흙을 채워 넣은 후 공이 등으로 다져서 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지에서도 현대의 생태 건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다.





작업 공정

• 흙다짐 공법(rammed earth)



흙섞기



거푸집



흙다짐



완성



마감공사



흙다짐 벽체

내재 에너지 (embeded energy)

내재 에너지 :

제조과정 중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총량
낮을수록 친환경적, 단위 kWh/m³

콘크리트 500 시멘트벽돌 1140

철 6,100 (산소 소모량 50 m³/t)

알루미늄 195,000 (산소 소모량 10000 m³/t)

흙 8

건축적 언어를 찾아서 – 재료

- 흙다짐 표준입도
 - 국내 황해주 흙건축
 - 점토 10 ~ 30%
 - 실트 10 ~ 25%
 - 모래+자갈 45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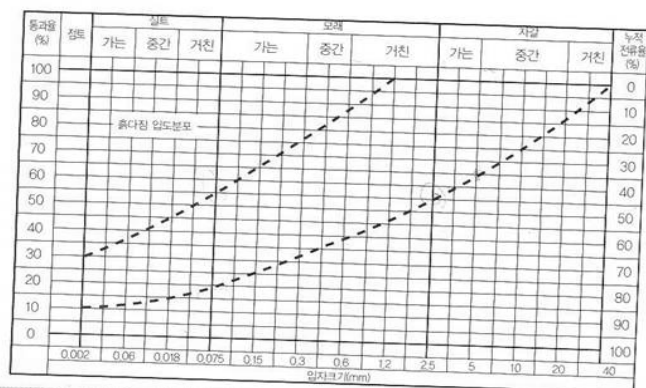


그림 4-2. 흙다짐에 적합한 입도분포

• 흙다짐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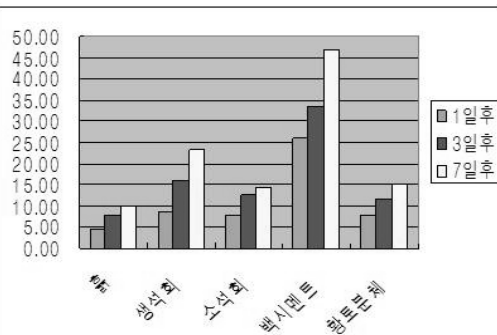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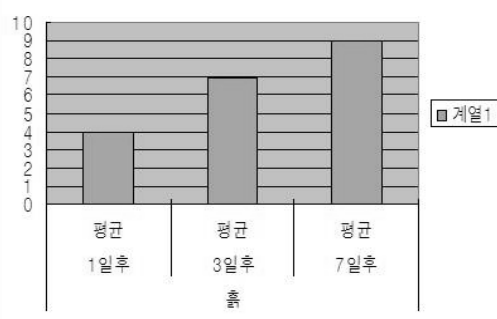
- 표준 입도에 근접한 배합을 통한 강도발현

• 압축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 첨가재료 및 첨가량에 따른 강도의 차이

국내 연구 결과

건축적 언어를 찾아서 - 재료



Straw bale

앞축벚단집(starw-bale house)

스트로 베일집은 잘 마른 앞축벚집을 이용해 벽체를 만들고 그양면에 흙을 미장함으로써 뛰어난 단열효과와 흙의 장점을 두루 살린 훌륭한 흙건축공법이다.

200여년전 미국 네바라스카에서 시작된 이 공법은 4년전 호주 starw-bale workshop을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동안 10여채의 국내 건축물을 통해 우리의 흙건축방법으로 든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구조 만들기



베일 쌀기



코브 채우기

Straw bale 작업 과정



완 성



1차미장하기

건축적 언어를 찾아서 - 재료

스트로 베일 - 얼마나 따뜻할까?

- **Straw Bale의 열전도율**

- 0.13 W/mK

- **중부지방 요구 열 관류율**

- 0.47 W/m²°C

건축물의부위 지역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이하	0.58이하	0.76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이하	0.81이하	1.1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이하	0.35이하	0.41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이하	0.52이하	0.58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이하	0.41이하	0.47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이하	0.47이하	0.52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이하	0.58이하	0.64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이하	0.64이하	



시료명	시험 분석항목	시험 분석결과	시험 분석방법
흙미장	열전도도(W/m ² °C)	0.5372	KS L 9016
고강도 흙타설	열전도도(W/m ² °C)	0.4105	KS L 9016
흙다짐	열전도도(W/m ² °C)	0.4760	KS L 9016
입자흙 단열재	열전도도(W/m ² °C)	0.2823	KS L 9016
강토타설	열전도도(W/m ² °C)	0.5076	KS L 9016
시멘트벽돌	열전도도(W/m ² °C)	0.4577	KS L 9016
Strawbale	열전도도(W/m ² °C)	0.1118	외국자료
왕겨	열전도도(W/m ² °C)		
시멘트물탈	열전도도(W/m ² °C)	0.4116	KS L 9016



[straw bale 400mm, 흙미장 100mm] 벽체의 열관류율 (열 관류율 = 열 전도율 / 두께 = 1/열저항)

$$R_i = 0.11 \text{ m}^2\text{C/W}$$

$$R_o = 0.043 \text{ m}^2\text{C/W}$$

$$t = 0.40 \text{ m}$$

$$\lambda = 0.13 \text{ W/m}^2\text{C (strawbale)}$$

$$T = 0.10 \text{ m}$$

$$\lambda_2 = 0.5372 \text{ W/m}^2\text{C (흙미장)}$$

$$\text{열 관류저항} = 1 / U = 0.11 + \{(0.4/0.13) + (0.1/0.5372)\} + 0.043$$

$$= 2.103 \text{ m}^2\text{C/W}$$

$$\therefore U = 0.20 \text{ W/m}^2\text{C}$$

법규 요구치 : 0.47 W/m²C 이하 (중부지방, 거실외벽, 외기 직접 면하고 있는 경우)

구조체 열관류율 $U(\text{W/m}^2\text{C})$

재료 열전도율 $\lambda(\text{W/m}^2\text{C})$

열저항 $R(\text{m}^2\text{C/W})$

표면 열전달 저항 : 실내 R_i , 실외 $R_o(\text{m}^2\text{C/W})$

재료두께 $t(\text{m})$



1997

언로드 베어링의 다양한 적용



이중 경량목구조



한식 목구조



판넬 월 시스템 + 철제골조



시스템 판넬 월



1997

언 로드 베어링의 다양한 적용



H빔 + 프리캐스트 베일



포스트 빔 목구조



아치 구조 + 대나무



리모델링 베일



베일 쌓기 + 코브 체우기



바탕 만들기 + 본미장 +마감미장



<http://blog.naver.com/dovevnu>



<http://blog.naver.com/dovevnu>



1997

노동을 넘어 심명으로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두레배움터

흙건축워크캠프

기간 8월 6일~13일(7박8일)
장소 두레배움터(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
교육내용 흙다짐/스트로베일/흙미장/로켓스토브
문의/신청 <http://cafe.naver.com/dure0409>
greatpeople@paran.com
010-2257-2102 이민선

손으로 짓는 집. 함께 짓는 집

주최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두레배움터 주관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두레배움터/흙건축열구소살림/마곡사

협동조합은 사업과 결사의 조합이 없으면 망한다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사례 —

박승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대표)

1. 협동조합 창립과 운영 경과

- 2010. 2월~3월: 마곡사 사찰에너지 절약 자립 워크숍 개최. 마곡사, 갑사, 광덕사, 관촉사 등 4개 사찰에서 스님, 재가불자들과 함께 사찰 에너지 절약과 자립 방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 2010. 9. 마곡사와 에너지시민두레, 청정발전, 흙건축연구회 등이 함께 마곡사 공민학교 터에 에너지생태건축학교 설립 구상과 논의 시작
- 2010. 12. 11. 10여명의 초동주체들이 모여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설립 합의.
- 2011. 1. 마곡사 공민학교 터 21년 장기 임대 계약서 작성
- 2011. 2. 16. 에너지생태건축학교 설립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 개최
- 2011. 3. 17. 발기인대회 준비 모임
- 2011. 4. 9.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발기인대회 개최(곳: 마곡사 연화당, 발기인 50명 참석). 공동대표: 원혜, 박승옥. 중심 사업인 생태단열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두레배움터 학교 설립(교장 김석균)
- 2011. 5. 14~5. 15. 마곡사 신록축제 참여. 생태건축 전시 부스 운영
- 2011. 7. 9. 제1회 조합원의 날 개최(20여 명 참석)
- 2011. 10. 30. 조합원의 날 겸 월동비 줄이기 워크숍 개최(연화당 개축 시공 병행). 로켓스토브 교육, 연화당 틈새메꾸기, 벽체 단열, 창호 단열 실습
- 2011. 10월 이후 아파트 황토방 만들기 1~4기 워크숍, 서울 포이동, 서천 등 생태단열 주택 워크숍, 자연재료를 이용한 헌집 고치기 워크숍, 대흥슬로시티 흙미장 워크숍 6회, 춘천, 세종시 등 10여곳 주택과 건물 신축 개축 생태단열 시공 사업 진행

2. 평가와 반성

1) 사업의 전망만으로 협동조합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석유화학 제품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고, 흙, 나무, 볏짚, 왕겨, 종이 등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생태단열 주택을 신축, 개축하자는 에너지 자립자치운동, 생태건축운동, 공동체 건축 운동 차원에서 초동 주체들이 결사하고 협동조합을 창업했음.
-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기존 주택 리모델링 사업, 무엇보다도 마곡사 산하 대전충남 지역 사찰의 요사채 개축 사업만 하더라도 사업의 전망은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임.
- 또한 에너지 절약 개념을 도입한 적정기술 건축, 귀농귀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품앗이 집짓기 워크숍만 하더라도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사업 전망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임.
- 그러나 협동조합 사업은 사업의 전망만 가지고는 사업 성공을 기하기 어려움, 충분한 시장조사와 실제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부의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코 지속가능한 사업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움.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자체 실행기획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초기 사업 출자금에 부족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음. 특히 사찰의 경우에는 요사채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음.

2) 결사의 수준과 비전 공유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건축 시공 노동자들의 생산자협동조합 성격과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품앗이 건축으로 내집을 짓는다는 이용자 협동조합 성격, 건축 이외의 햇빛발전, 소수력발전, 바이오가스 발전 등 적정기술 에너지 협동조합 성격 등 다중이해 복합 협동조합으로서 출발했음.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으나, 각 사업별로 엄밀한 사업 전망을 세우고 세부 사업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였으나 이에 대한 기획과 실행방안이 매우 미흡했음.

- 협동조합은 결사체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필요충분 조건임. 그러나 초기 결사의 수준에 대해서는 솔직한 공유와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초기에 몇 사람이 함께 사업할 도모할 것인지, 활동비를 줄 출자금 없다면 몇 년 몇 개월을 노동 출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창립비용으로 활동비를 계상하고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감으로써 사업이 정체되고 재무적 위기가 생겼을 때, 아무도 사업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 결국 협동조합 사업은 초동주체들이 사업 전망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정하고도 엄밀한 확인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함. 또한 조합원을 단순한 출자 후원자로 머무르게 해서는 결코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으며, 조합원 성격이 어떠하든 반드시 처음부터 전체 조합원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실행계획과 재무계획 등에 대해 공유와 확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아가야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음.
- 일반 자본주의의 영리회사는 자본의 힘으로 초기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자본이 없으면 망함. 협동조합은 사람의 힘으로 초기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와 결사가 없으면 망함. 아울러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결사와 사업에 대한 ‘조합’이 없으면 지속가능할 수가 없음.

3) 협동조합 사업의 경쟁력은 비용 절감보다 신뢰이다

- 건축 비용은 대체로 자재비 1/3, 인건비 1/3, 그리고 기업 이윤이 1/3 등으로 구성됨. 자본주의 영리회사는 값싼 비품 자재를 쓰고 공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극대화시킴.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건축주가 직접 정품 자재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품셈 계산을 통해 인건비 또한 건축주와 협동조합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일정 비율의 합의된 조합운영비를 부과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건축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절감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건축 문화는 일제 때부터 내려온 건축 노동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노가다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상황임. 협동의 정신과 상호부조 정신을 자신의 삶과 노동으로 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품셈 계산은

곧바로 불신과 불화의 요인으로 바뀌고 말게 되고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건축, 품앗이 건축은 이전에 상당한 정도의 협동조합 학습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 건축주 또한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인터넷과 다른 건축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다양한 건축 관련 정보로 말미암아 실제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갖게 되고 이것이 불신과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임. 협동조합 방식의 건축은 이에 대한 사전 조정과 합의, 건축주와의 사전 신뢰 구축 과정이 필수임.
- 따라서 건축협동조합의 경쟁력은 비용 절감 이전에 상호 신뢰이며, 이는 어떤 경제 활동 분야의 협동조합일지라도 마찬가지임. 협동조합 사업의 결과물인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을 더불어 함께 만들자’라는 구호 아래 상품으로서의 건축을 배제하고 인간관계로서의 건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으로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음.

4)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 생태단열 건축이 아닌 동네목수들의 적정기술 생태단열 건축, 품앗이 집짓기 조직화, 100만원으로 아이방 황토방 만들기, 베란다 햇빛발전소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음

- 적정기술의 생태 단열 건축은 자본주의의 전문가들이 지향하는 고비용 최첨단 기술이 아닌 동네목수들이 시공할 수 있는 저비용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네목수 양성과정을 주 워크숍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그동안 애초의 본뜻과는 어긋나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벌여왔으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시 사업을 기획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음.
- 품앗이 건축은 일정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실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따라서 일정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품앗이 건축을 계 형태로 조직할 예정임.
- 100만원으로 아이방 황토방 만들기 사업 또한 개개인이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신청인들을 모아 계 형태의 공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

[참고자료]

너무도 간단한 겨울 난방비 확 줄이기

박승옥 (에너지생태건축협동조합 대표)

솔직히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모범 또는 이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인들의 삶을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삶인 양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은 분명 누런 데도 하얀 피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누런 피부 하얀 가면의 삶이 정확한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집은 한옥이 되었고,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은 한식이, 우리가 입던 옷은 한복이, 우리가 즐기던 음악은 국악이 되었습니다. 양복과 양옥과 양식, 양악이 이제는 ‘양’ 자를 빼고 당당히 그냥 보통명사의 집과 밥과 옷, 그리고 음악입니다. 여성들은 서양 여자들처럼 피부색도 희고 눈 크고 쌍꺼풀지고 코 뽕족하고 머리 색깔도 금발로 염색하고 키가 커야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에너지전환도 그 방식과 사고의 틀 자체까지 모두 서구 자본주의나 서구 생태주의의 패러다임을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최고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다시피 도입된 패시브하우스도 그 한 예에 속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쉽게 말해서 집 전체를 철저히 단열하고 밀폐해서 아예 공기도 강제순환시켜 냉난방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는 집과 건물을 말합니다. 패시브(passive)란 영어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능동이고 무엇이 수동인지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순전한 기술주의 용어입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오직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만 집과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단열재들이 대부분 독성화학물질 투성이인 석유화학 제품들이라는 점은 고려에 들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감옥처럼 집을 밀폐한다는 발상도 자연과 호흡하는 주거 환경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주택 개념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물질 만능의 유물주의인 서구 환원주의와 자연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서구 기술만능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극소화시키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을 단열할 때 들어가는 단열재 또한 집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를 써야 마땅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그 제품을 만들 때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무엇보다도 석유화학 제품은 자연의 기적같은 물질인 석유를 고갈시키면서 동시에 사람과 동식물의 목숨을 앗아가는 수많은 환경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산업화 이후 사람들이 만든 어마어마한 양의 독성화학물질은 지금도 지구상의 땅과 바다와 공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거기다 날마다 9만톤 가량의 독성화학물질이 더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일에 앞서 에너지 소비를 거의 혁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에너지 자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의 미친 에너지 소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과학기술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사기꾼이거나 국가와 자본의 주구인 이른바 맹목의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소비는 주로 운송과 주택의 냉난방, 취사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송과 냉난방에너지, 취사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 가운데 냉난방 에너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겨울철 난방비를 확 줄일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냉난방 에너지와 취사 에너지는 거의 완전히 자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들과의 품앗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촌 가정에서 냉난방과 취사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요즈음은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겨울철 난방비는 점점 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심야전기 또한 전기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 심야전기 난방은 원자력발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석탄이나 가스, 석유 발전과 달리 한 번 발전을 시작하면 발전을 했다 말았다 할 수 없고 24시간 내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기 소비가 대폭 줄어드는 심야시간에는 전기가 남아 돌아아깝게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를 지은 것입니다. 남아 도는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 댐에 가두어두었다가 전기 소비가 많은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물을 떨어뜨려 발전을 하는 것이 양수발전소입니다. 그래도 심야에 전기가 남으니까 아주 값싼 겨울철 난방용 심야전기를 보급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수발전소와 심야전기는 원자력 발전이 낳은 쌍둥이 사생아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심야전기가 너무나 많이 보급돼 급기야는 심야에 전기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심야에도 어쩔 수 없이 가스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심야전기 보급이 아니라 심야전기 억제 정책을 펴고 심야전기 값은 헐값이 아니라 갈수록 비싸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한전의 에너지 정책이란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불태워 열로 만들어서 애써 고급의 전기를 만들어 놓고는 이 전기를 다시 애써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열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중의 상 바보나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취사에너지는 프로판가스입니다. 이 가스값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만 합니다. 기름값과 가스값 때문에 최근에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대는 일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쩐지 그나마 간신히 숨만 쉴 정도로 남아있는 생태계의 마지막 피난처, 숲을 파괴하는 것만 같아 꺼림칙합니다. 간벌을 해서 얻은 나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태건축이라고 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자연재료, 흙과 나무를 이용한 집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에너지전환 개념이 도입되면서 요즈음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에너지가 절약된다면 생태건축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서구의 패시브하우스를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들과 건축가들은 우리의 전통 흙집과 나무집은 단열이 잘 안되는 집이라는 생각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흙집과 나무집은 나름의 아주 훌륭하고도 서구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생태건축의 본보기이며 단열 또한 아주 잘 됩니다. 농촌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주저없이 단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흙과 나무집을 지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웃들과 품앗이 하면서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면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흙건축 전문가를 만나는 인연도 중요합니다. 귀농통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흙부대건축이나 흙건축 관련 카페에 들어가면 정보를 결코 돈으로 생각지 않는 우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유용한 자료도 많습니다.

냉난방에너지 절약의 핵심은 단열입니다. 창과 벽과 벽의 틈새와 지붕과 바닥의 단열을 확실히 하면 겨울철 난방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열의 방법을 아주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틈새메꾸기:** 서로 다른 재질의 창문과 벽체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깁니다.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처럼 이 틈이 겨울철 난방비의 주범입니다. 이 틈을 메꿔주는 것만으로도 방 안이 훈훈해집니다. 틈새를 메꾸는 재료는 한지를 물에 푼 것이나 한지, 흙, 석회 등을 형질 천을 넣어 배합한 것 등을 써도 됩니다. 한지는 아주 우수한 단열재이자 틈새메꾸기 재질입니다.
2. **창문 단열:** 에너지 개념없이 지은 현대식 양옥의 창은 겨울철 난방비의 주범입니다. 통유리는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문에 커튼을 다는 것도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단열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중 단열창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중 한지창(안과 밖을 한지로 바른 창) 또한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3. **벽체:** 기존 집이 우풍이 세다면 내벽이나 외벽에 공기층을 두고 따로 흙벽돌을 한 켠 썰어 올리기만 해도 벽체 단열 효과는 엄청 커집니다. 벽체 사이에 뛰어난 단열재인 왕겨나 왕겨를 태운 훈탄을 넣어도 됩니다. 또는 내벽에 역시 뛰어난 단열재인 스트로베일(압축 짚) 보드를 붙여도 됩니다.
4. **지붕:** 지붕에도 천장 위에 왕겨나 훈탄을 깔아주면 단열이 됩니다.

취사에너지는 단열을 해서 나무를 거의 완전연소시키는 로켓스토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7천만 남북한 주민들이 로켓스토브로 취사를 하는 순간, 남북한 산은 모조리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을 부수고 똥오줌을 이용한 마을 단위의 바이오가스 시설은 조만간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한 말씀. 무어니무어니 해도 웬만한 추위는 견딜 줄 아는 강인한 마음가짐이 에너지 전환의 지름길입니다. 결핍을 생활의 필수로 받아들이고 이웃과의 우애와 상부상조를 따뜻한 겨울철 난로로 아는 공동체 정신과 지혜야말로 마을 에너지 자립의 출발입니다.

제 2 분 과

2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정 민 철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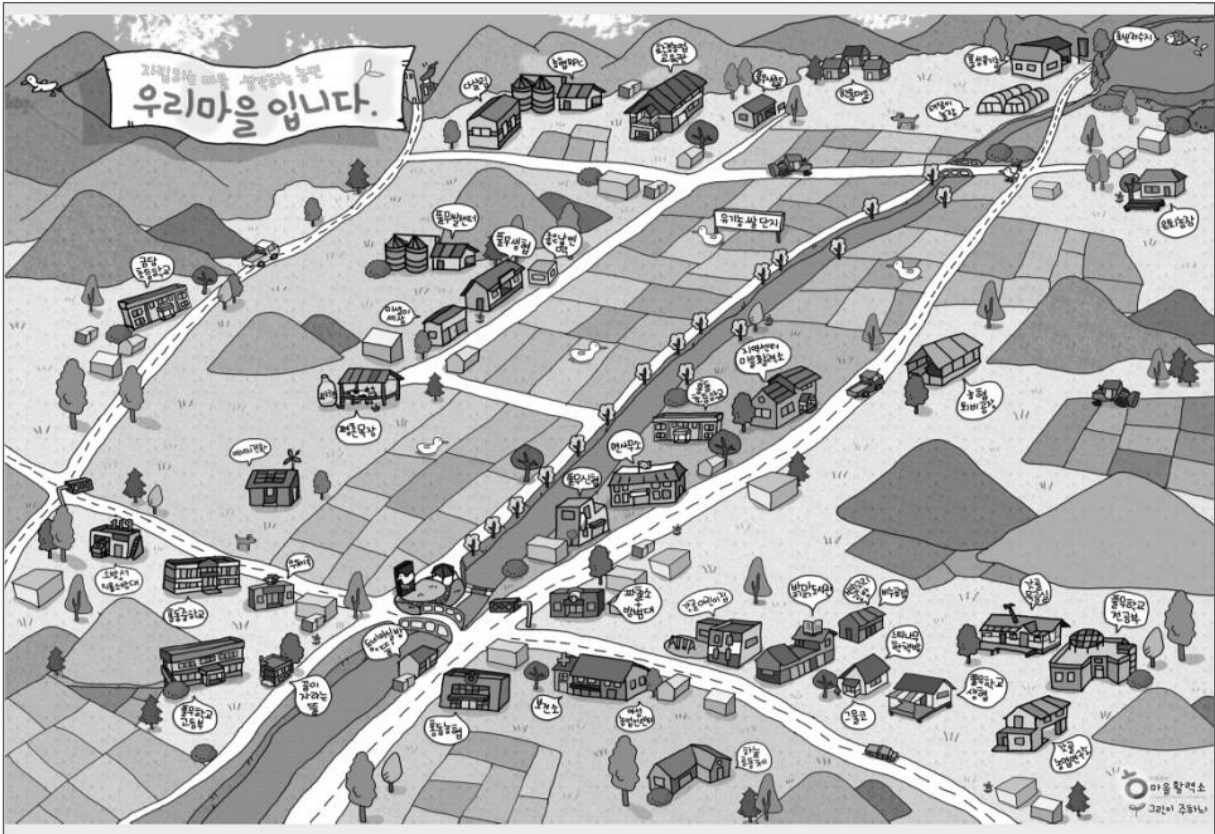
정민철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고민



- ✓ 농업 - 자본
경제적 : 토지, 농기계
소농, 가족농
- ✓ 농촌 - 지역성
사회적 : 관계, 친 환경
마을 만들기
- ✓ 학교 - 학생
진로 : 농업, 지역
지역교육











협동조합-점은협업농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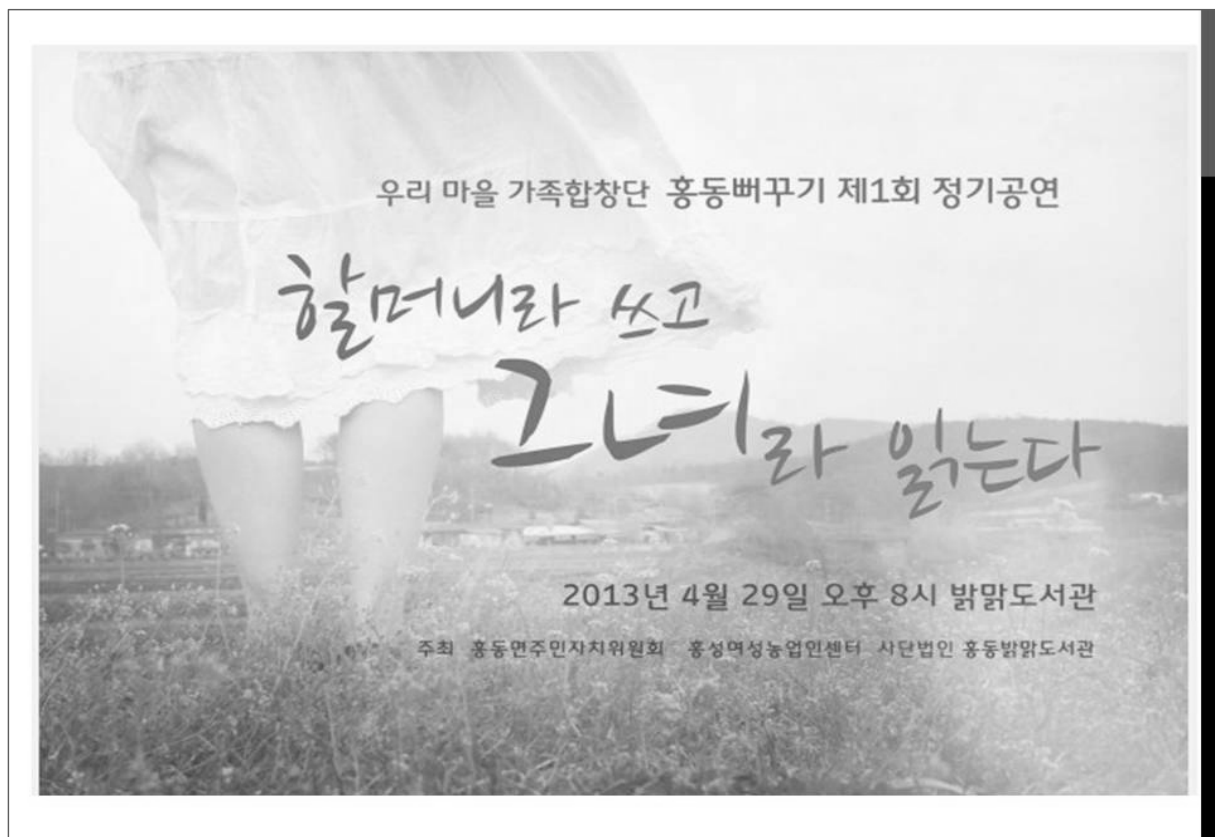
토지의 공공화, 시설의 조합화, 생산 참여자에 대한 분배
협업농업 / 다중이해자협동조합

- 토지는 임차 : 임대주도 조합원
- 조합원 31명, 출자금 3,400만원 : 하우스의 신축
- 하우스 1,200평(쌈채소, 부추), 노지밭 2,000평(감자, 고구마)
- 마을 이장,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학교법인 풀무학원
- 풀무학원 이사장, 영농조합대표, 생산참여자 2명
- 80%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마을 식당 / 20% 직거래, 외부식당
- 오누이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 생미식당 및 생미장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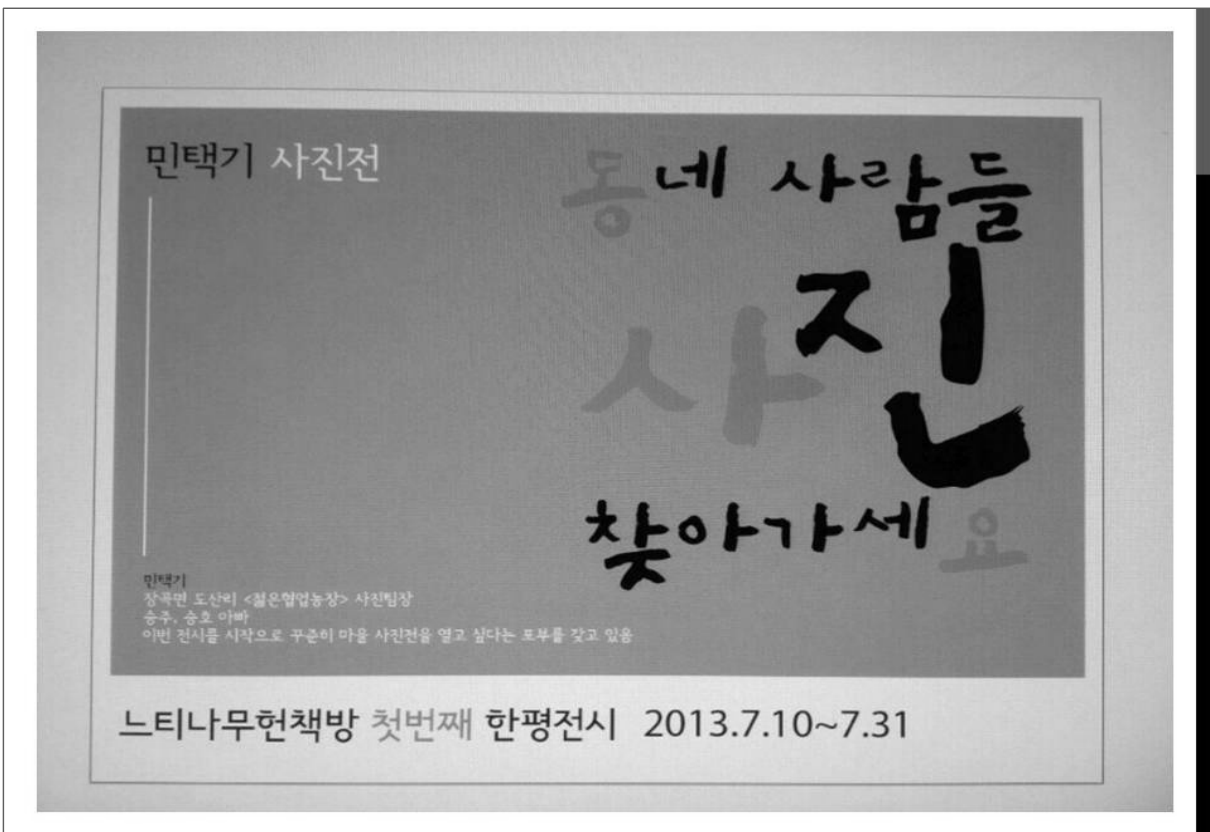


















기업경제와 지역경제

지역에서 소외 / 지역의 역사와 경험

공업주의와 농적 생활주의(Agrarianism)

자본과 기술기반 / 땅 기반

가치 이상 / 자금 경제 (협동조합)

경제 / 경제 + 문화 (교육)

지구적 / 지역적

대규모 / 소규모

지역 경제만이 아니라 지역 자치

이를 위한 교육, 경제, 문화, 자치의 지역화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

협동조합-점은협업농장 2

[협동조합] 농업생산협동조합

마을 내 협업적 농업 생산 조직 : 5~7명의 적정 규모

새로운 협업농장으로 분화 : 농업의 다양화, 운영의 다양화

다양한 형식의 협업농장 :

지역 농업생산협동조합연합회

[교육기관] 마을로 사람을 보내는 통로

농업실습교육

지역교육

농업기술교육

귀농교육

[지역단체] 지역(리, 면)과 생존을 함께 하는 협동조합

지역단체와 강하게 결합한 협동조합 (단체간 조합원 가입)

새로운 단체의 인큐베이션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주는 조직



제 2 분 과

3

우리놀이협동조합

- 준비에서 시작..그리고 미래 -

이 원 하

(공주 우리놀이협동조합 상무)

우리놀이협동조합

- 준비에서 시작....그리고 미래 -

Contents

1. 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2. The Motto is...
3. 협동조합 운영 기본 방향
4. 사업 개요
5. 사업 범위
6. 사업 계획
7. 사업 VISION
8. 기대효과
9. 사업 운영 계획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1.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우리가 목표하는 Mission 3가지



오랜 세월 내려오는 건강한 우리놀이의 대중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업
미래의 꿈 청소년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의 장 제공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1.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 ✓ 단순한 우리놀이 기구 및 교보재 생산만이 아닌
다양한 놀이 문화의 체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강사 육성 사업을 하며..
- ✓ 놀이 체험 교육, 인형극 공연,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며...
- ✓ 놀이 강사 육성 및 질품 관련 사업 전개를 통해
노령층 및 농한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놀이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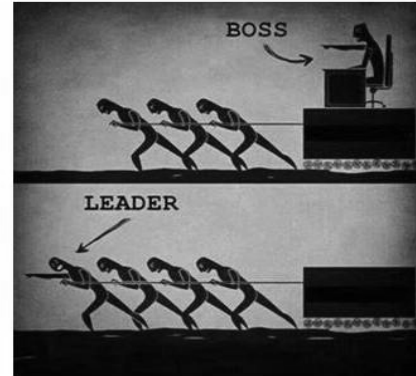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2. The Motto is...

이러한 방향을 표현하는
우리놀이 협동조합의 Motto는...



We are the Leader

모두가 Fun style로 눈으로 보고.. Fun style로 몸으로 느끼고.. Fun style로 인식하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된다.

우리는 **Boss**가 없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Leade**이다."
스스로가 오너이고 스스로가 일꾼이다.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3. 협동조합 운영 기본 방향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도 똑같이 주어지는 과제...
과연, 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

방법은?

협동조합 운영 주수입원

놀이기구 및 교보재
생산 판매

곱셈효과!!

협동조합원 주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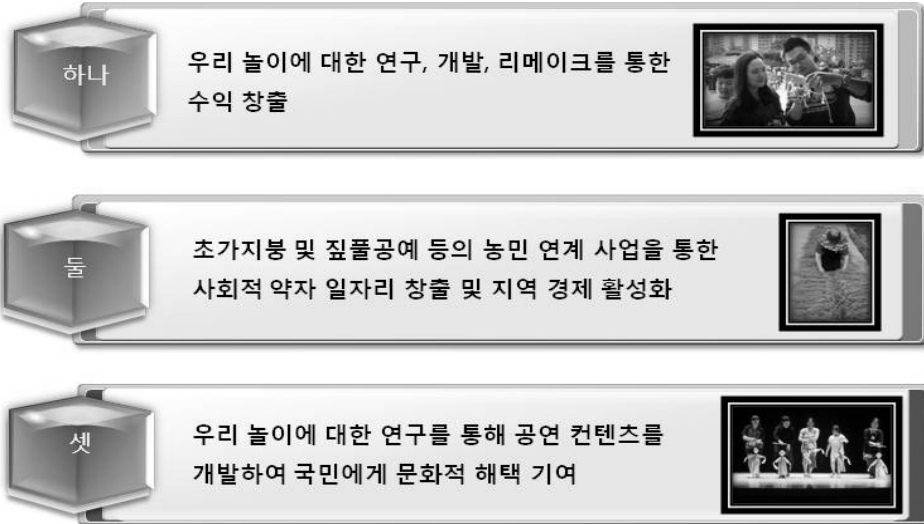
교육 강사료
공연출연료
짬뽕 사업 인건비
등...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4. 사업 개요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5. 사업 범위

- ✓ 마을과 연계한 사업 추진
- ✓ 초가지붕 등 공공서 사업 우선권 확보
- ✓ 마을기업놀이 건설팅
- ✓ 짚풀 공예 제품화 개발 연구
- ✓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활성화
사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우리
놀이
연구

- ✓ 전통놀이 및 연희 연구, 개발
- ✓ 현대에 맞게 리메이크하여 제품화
- ✓ 놀이강사육성

Product
(전통놀이기구)

- ✓ 문화 공연 기획
- ✓ 지역 체험 행사 참여
- ✓ 전통 연희 리메이크를 통한 대중화

문화
컨텐츠

이제는 알려야 합니다!

지속적인 전통놀이에 관한 연구, 개발
세계화 시각에 맞게 리메이크하여 제품화

PRODUCT

- 전통에 기반을 둔 우수한 품질의 제품

PLACE

- 국외 축제 및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유통 경로 확보, 해외 시장 진출

PRICE

- 합리적 가격에 우수한 기능과 품질의
제품 공급

아무리 뛰어난 제품 이더라도 수동적인 마케팅과 전편일률적인
홍보로는 고객의 Needs에 어필 할 수 없습니다.

- ✓ 누구라도 꼭 한 번 해 보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것!
- ✓ 사용 해 보면 꼭 다시 찾게 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 ✓ 입소문과 추천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

• 지역축제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홍보 및 판매 루트의 다각화

- 해외 시장 개척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6. 사업 계획

1. 우리놀이 교육자료 발간

가. 목적

- 사라져가는 우리놀이에 관한 연구, 계승
- 우리놀이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전파

나. 대상

- 시민단체, 교육단체, 문화단체 회원
- 초중고생, 대학교 문화컨텐츠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학생
- 기타 청소년 및 일반시민

우리놀이 교육자료 발간	
일 정	2013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2013년 12월 초본 완료, 자문을 통한 검증 2014년 1월 초판 발행
장 소	협동조합 주소지 내 임시 사무실
진행 방식	우리놀이 자료 수합, 검증, 자료집 발간을 위한 데이터 작업
내 용	유객주놀이, 고누놀이, 승경도, 쌍륙, 죽방울놀이, 버나놀이, 지게놀이 외 다수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6. 사업 계획

2. 우리놀이 제품화 사업

가. 목적

- 사라져가는 우리놀이에 관한 연구, 계승
- 우리놀이를 체험 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협동조합의 장기적 수익 모델 창출

나. 대상

- 시민단체, 교육단체, 문화단체 회원
- 초중고생, 대학교 문화컨텐츠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학생
- 기타 청소년 및 일반시민

우리놀이 제품화 사업	
일 정	2013년 11월 중 사업 개시 (생산 공장 시스템 완비 후) 2013년 11월 브랜딩(BI,CI) 작업 2013년 12월 제품 패키지 개발 / 제품 개발 및 샘플링 2013년 12월 홈페이지, 쇼핑몰 개설 / 제품 생산
장 소	협동조합 주소지 내 생산 공장
진행 방식	제품 개발 및 조립, 마감 / 브랜딩(BI,CI) 작업 / 제품 패키지 개발 / 홈페이지, 쇼핑몰 개설
내 용	유객주놀이, 고누놀이, 승경도, 쌍륙, 죽방울놀이, 버나놀이, 지게놀이 외 다수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6. 사업 계획

3. 우리놀이 강사 교육

가. 목적

- 우리놀이 강사 양성

나. 대상

- 시민단체, 교육단체, 문화단체 회원
- 대학교 문화컨텐츠 관련 학과 및 동아리 학생
- 기타 일반시민

우리놀이 강사 교육	
일 정	2013년 10월부터 ~ 지속적으로 실시
장 소	공주문화원, 천안/아산 (장소 미정)
진행 방식	이론 교육 및 실질적으로 체험
내 용	우리놀이 이해와 놀이방법 강의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6. 사업 계획

4.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놀이

가. 목적

-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놀이 체험을 통해 교육, 전파

나. 대상

- 공주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놀이	
일 정	201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장 소	공주지역아동센터
진행 방식	우리놀이 체험
내 용	유객주놀이, 고누놀이, 승경도, 쌍륙, 죽방울놀이, 버나놀이, 지게놀이 외 다수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6. 사업 계획

5. 충남 지역 축제 참여

가. 목적

- 지역축제를 통해 우리놀이 체험을 통해 교육, 전파
- 짚풀 사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고용 창출

나. 대상

- 백제문화제, 온양온천대축제, 천안흥타령문화제, 공주알밤축제, 고마나루축제, 유구야놀자 등

충남 지역 축제 참여	
일 정	[백제문화제] 2013년 9월 28일 ~ 10월 6일 기타 축제는 완료 및 추가 협의중
장 소	공산성 백제마을
진행 방식	우리놀이체험 한마당
내 용	유곽주놀이, 고누놀이, 승경도, 쌍륙, 족방울놀이, 버나놀이, 지게놀이 외 다수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7. 사업 VISION

Success

Point #1. 지역부터 시작하여 국내, 그리고 해외로....

- 지역연계사업을 위한 국내 관공서 입찰 지원
-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 판매 거점 확보 (놀이기구, 짚풀공예 등)
- 에딘버러 등의 행사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로 확보

Success

Point #2. 체험의 장을 구성하자.

- 체험프로그램, 방과후학습 등을 통해 오프라인 놀이기구 홍보
- 뛰어난 제품과 탁월한 기능성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현장 프로모션 진행

Success

Point #3.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 Web/Mobile Marketing 을 통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확보
- SNS, 블로그 등을 통한 Web 홍보
- 매체 광고가 브랜드 PR의 기초를 다진다면,

온라인에서는 SNP 매니아로 하여금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잠재 소비자와 소통하게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수 매장이 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와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명의 매니아는 100명의 고객에게 입 소문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8. 기대효과

#1 사회적 효과

- 전통놀이의 세계화를 통한 우리놀이우수성 널리 알림
- 전통연회를 통한 재능기부 환원
-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감성 자극
-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 문화의 계승
- 새로운 브랜드 기업으로 발전, 충청남도의 인지도 상승

#2 경제적 효과

- 사회적 약자 일자리창출
(장애인, 한부모가정, 시골어른신들의 농한기 인력창출)
- 고용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리놀이를 지켜가는 똑똑한 기업

우리놀이 협동조합...

9. 사업 운영 계획

Year	2013년	2014년	2015년
Goals	Expand the base		New Market leader
Launching	기업 설립	기업 안정화 및 branding	
Off-Line	다양한 놀이기구 개발/생산/판매 문화컨텐츠 개발/공연 관공서 입찰 제안		해외 시장 진출 정확한 타겟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선택적 Promotion 사회적 공헌 확대
On-Line	홈페이지, 쇼핑몰 개발 SNS, 블로그 오픈		기존 Community 의 지속적인 관리 / 개발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의 Promotion Mobile Web/App 개발 (판매 또는 게임 컨텐츠 제공)
ATL, PR	연간 광고 효과 분석 / 효과성 높은 아이টে에 투자 브랜드 이미지 효과 광고에 주력		

✓ Tip : 단계적인 Branding 활동을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04

제 3 분 과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제1발제 정상진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제2발제 최재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제3발제 백세기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장)

제 3 분 과

1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 상 진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 상 진

I. 설립배경

1. 사회적경제 영역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내부 거래 활성화와 공동사업추진으로 지역 순환경제 토대구축 필요.
2. 후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필요.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을 통한 행정교섭력 확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거버넌스구축.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Ⅱ. 주요활동경과

1. 2012년 5월 준비위결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사회복 지, 문화등
23개 기관 단체
2. 2012, 9~10 홍성협동사회경제포럼-사회적경제
10~11희망마을 현장포럼
12~1 충남희망그린협동조합 아카데미.
3. 2012, 11월 22일 창립총회
2013, 2월 19일 정기총회
매월 정기이사회 개최
7/1~6 협동조합 주간행사 진행 : 전시판매전, 포럼등
7~8월충남희망그린협동조합 아카데미 심화과정 진행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2

Ⅲ. 주요사업

1. 회원 단체간 네트워크 사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복지단체, 문화단체등 각자 영역
은 다르지만 서로 도우면 상승효과가 생기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실시.
⇒ 녹색가게 : 문화연구소 길+자활센터+YMCA+자원봉사센터
CCBC, 생미장터 : 지역 회원단체 생산품 전시판매.
2. 교육사업
-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회원조직 회원도 참여 기회
제공.
- 각종 교육사업의 공모를 통하여 회원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
⇒ 마을만들기학교, 마실이학교, 의정지기학교, 사회경제아카데미 등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3

Ⅲ. 주요사업

3. 거버넌스 구축.

-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회원 조직이 바로 알 수 있는 정보제공과 행정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민간영역 활성화.
- 홍성군 친환경농업 농정기획단과 협력.

⇒ 홍성민관협력네트워크 “홍성通” 행정(경제과, 농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민간(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농총체 협관광 협의회, 희망마을협의회)

4. 후발조직에 대한 선행조직의 지원.

-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 또는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 하기위한 조직,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력을 통하여 많은 조직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희망마을만들기’ 컨설팅 참여.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4

Ⅲ. 주요사업

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만들기.

- 지역에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낮음
- 지역행사(축제등)에 홍보부스 운영 등.
- ⇒ 도민체전, 내포축제 등 부스운영.

6. 신규회원 단체(조직) 발굴.

- 신규 회원 조직의 확대.
- ⇒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가입

7. 재정 확보 방안 추진.

- 전 회원단체 회비납부.
- 사회적 경제 관련 공모사업 추진.
- 지자체 예산확보 추진.
- ⇒ 14년 예산으로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지역활동가 양성학교) 프로그램 신청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5

Ⅲ. 주요사업

8. 역할별, 영역별 분과위원회구성으로 사업 효율화

(역할별)

- 조직 : 회원조직간 네트워크 및 신규회원 발굴 등
- 교육 : 교육 수요 파악 및 배치, 회원조직 교육사업 공유, 교육계획 수립
- 거버넌스 : 행정과의 파트너십 사업 발굴 및 진행, 예산계획수립.
- 대외협력 : 타 지자체, 광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사업.
- 제정 : 회원회비 및 후원, 지자체예산

(영역별)

- 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복지
- 자활
- 문화
- 체험관광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6

Ⅳ. 향후 계획

1.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을 통한 현장 배치로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2. (가칭) “지역순환경제센터” 추진
3.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준비.

홍성협동사업경제네트워크

7

제 3 분 과

2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최 재 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최재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방안을 찾아봄에 있어 학문적 연구를 고찰하기보다는 천안지역 네트워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살펴보고 그 역할을 정의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가고자 하는 길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천사넷”)는 2012년 10월 16일 발족한, 이제 막 1년이 되어 가는 신생 비영리단체이다. 천사넷은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내의 지역 협의회인 천안사회적기업협의회의 활동에 천안NGO센터, (사)충남벤처협회, 천안YMCA가 뜻을 같이해 지역의 문제를 ‘협동과 순환’의 고리로 풀어보려고 결성하였다. 지금은 천안지역자활센터도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천사넷은 선언문에서 “오늘 우리는 천안의 미래모습이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재건과 공생, 협동의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천안의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넘어 사회적경제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천사넷 정관 제3조에서는 “지역 내 사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동을 통한 연대로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천사넷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천사넷의 역할

천안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수도권에 편입된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적 문제인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교육과 환경 등의 문제가 있고 역외 유출, 구도심의 공동화, 농촌인구의 감소같은 지역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앓고 있는 특정문제도 있다.

천사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연대와 협동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망(네트워크)이 그물처럼 연결되고 이슈에 따라 합종연횡하면서 의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망이 지역의 자본이 되고, 이 자본을 통하여 사회구조가 더욱 튼튼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천사넷은 이 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첨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 망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까?

▷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아무리 빠른 도구가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같은 곳(동일한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 동행할 수 있어야

목적이 같다고 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주는 교훈을 협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협동의 실천은 ‘참여’다. 참여가 망을 살려내는 살림살이다.

▷ 말을 하게 해야

요즘 ‘소통’이 화두다. 그런데 그 소통이란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억지로라도 말을 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회의든, 발표든, 말을 하도록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이유가 설명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공유할 수 있어야

자원이 공유될수록 좋다. 그것이 물자든, 정보든, 사람이든지간에 공유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내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원이 공유되

면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 소통이 활발해진다. 물론 이익도 공유될수록 좋다.

▷ 현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추석명절에 영화 ‘관상’을 보았다. 영화가 끝나갈 즈음 이런 대사가 있었다. “나는 파도만 보았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현상에 매몰돼 근본적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실마리를 함께 풀어야

잘났다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표현하는 글들을 자주 본다. 역사는 1%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니,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니 하는 것들이다. 지역자본도 그럴까? 지역의 이슈를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이 풀어내기엔 한계가 많다. 담론으로 제기하고 함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 조급하지 말아야

실마리를 풀었어도 조급하다보면 다시 엉킬 수 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는 풀린 실마리가 엉키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잘 키워진 한 마리의 말은 평균적으로 약 6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말 두 필이 함께 끈다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 단순히 더하면 12톤이지만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지역의 자원이 망으로 연결되면 사회적자본의 크기도 달라진다.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정도가 사회적자본의 크기를 키우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천사뱃이 가고자 하는 길은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다. 이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제 3 분 과

3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

백 세 기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장)

서천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방안

백세기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장)

○ 들어가며

후발주자인 서천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활성화 방안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지역에서의 고민들과 저간의 진행상황을 피력해 봄으로 선진지역의 좋은 사례들과 선배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

○ 지역배경상황

- 서천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상대적으로 사회진보역량을 근거로 한 민주적 지방정부의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민간운동 역량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일부의 사회경제적 추진 주체들도 사회적경제운동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담지 못한 채 행정주도의 지원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사회적 대안운동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필요성

- 우리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지역공동체의 회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소외의 제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와 협동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상생, 분배, 소비와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활동으로 사회적경제 관점에 입각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함.
- 충발연과 지역재단 공동으로 수행중인 서천군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연구용역이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순환 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대안세력으로서 여러 의견 조율과 비판, 견제 또는 지원, 상생세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구성 및 운영

-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 내 지역순환사회협의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마을단위, 농민단체등 사회적경제영역에 부합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
- 일정기간 조직구성을 위한 학습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
-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모임과 토론 진행
- 비영리 단체와 법인 형태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함.

○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사업

조직의 구성 후 추진주체들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기본적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과 교육 육성 사업
- 지역 내의 사회적 소외현상의 현황파악과 정책대안 제시 및 연구활동
- 서천군의 주요지역 현안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사업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으로서의 조직지원 및 배양사업
- 사회적경제 주체의 연대 협력방안 마련
- 이에 부수되는 사업

○ 추진계획

- 네트워크 제안 및 발기 주체 구성
- 네트워크 창립준비 및 워크숍
- 창립회원 확보 및 정관, 사업계획
- 창립총회
- 법인등기

끝으로, 아직 추진 준비중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을 만나면서 순수한 열정과 건강한 생각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싹들을 잘 키워내면 머지않아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서천지역공동체가 형성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따뜻한 기업, 행복한 공동체

“따숨”은 따뜻한 숨결의 준말로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의지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관심이 녹아 있는 공동 브랜드입니다.